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이다. 집단 지위의 정당성은 '집단간 지위의 차이가 합법적으로 여겨지는 정도'(Turner & Brown, 1978) 또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서 상이한 집단의 상대적 지위를 규정하는 사회적 위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Schmader, Major, Eccleston, & McCoy, 2001)으로 정의된다. Major(1994, Major, Gramzow, McCoy, Levin, Schmader, & Sidanius, 2002)는 자신의 자격(entitlement/deservingness)에 대한 신념, 보다 넓게는 '정당한 세상'(Just World)에 대한 신념이 지위의 정당성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집단 지위의 안정성은 '집단 전체의 대안적인 지위가 실현될 가능성'(Ellemers, Wilke, van Knippenberg, 1993)으로 '집단의 지위가 변동되거나 역전될 가능성'(Turner & Brown, 1978)을 말한다.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 중에서 지위 고저와 그 정당성에 관한 변인들은 저 지위(low status)나 불이익(disadvantaged) 집단원이 보이는 반응을 중심으로 사회지배이론(social dominance theory: Levin, Sidanius, Rabinowitz, Federico, 1998; Pratto, Sidanius, Stallworth, Malle, 1994; Sidanius, Levin, Federico & Pratto, 2001)이나 체제정당화이론(system justification theory: Jost, 1995, 1997; Jost & Banaji, 1994; Jost & Burgess, 2000; Jost, Burgess, Mosso, 2001; Kay & Jost, 2003; Martin, 1986; Major, 1994; Major 등, 2002; Major & Schmader, 2001; Olson & Hafer, 2001; Tyler & McGraw, 1986)과 같은 연구 맥락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되어 왔다. 특별히 저 지위 집단이나 불이익 집단 및 소수 집단에 대한 연구는 연구주체가 시사하는 사회적 중요성뿐 아니라 지위의 정당성 정도에 따른 상이한 반응으로 인해 주목을 받아 왔다. 상이한 반응양상은 1)내집단 편애 또는 외집단 편애의 반응에서, 2)지위의 차이를 내는 비교 영역에 대한 가치평가에서, 3)사회 비교의 대상과 자격(entitlement)에 대한 평가에서, 4)차별 지각에서 나타났다.

내집단 편애 대 외집단 편애

집단의 지위와 정당성 및 안정성의 세 구조적 변인들에 대한 Turner와 Brown(1978)의 실험 연구를 보면, 저 지위 집단원의 경우 비합법/불안정 조건에서만 내집단 편애가 나타났고 다른 세 조건들(합법-안정/합법-불안정/비합법-안정)에서는 외집단 편애가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적인 예상대로 고 지위 집단원들은 네 조건에서 모두 내집단 편애를 보였다. Ellemers 등(1993)은 저 지위 집단원이 자기 집단의 낮은 지위가 불공정하고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부여된 것으로 지각하게 되면 사회적인 응집력이 생겨나서 집단정체감이 부각된다고 보았다. 집단 정체감의 부각은 내집단 편애 반응을 이끌어내게 된다. 한편, Jost 등(2001)은 경쟁 집단들(두 지방대학) 간의 사회경제적인 성공에 대한 지각과 사회경제적 차이의 정당성 정도를 조작하여 집단 지위의 고저와 정당성을 조변하였다. 내집단 편애와 외집단 편애 정도를 사회경제적인 측면과 관련된 고정관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측정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저 지위 집단원은 외집단 편애를 나타내는 반면에 고 지위 집단원은 강한 내집단 편애를 보였고 지위와 정당성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고-정당성의 지각은 고 지위 집단원에게는 내집단 편애를 증가시키지만 저 지위 집단원에서는 내집단 편애를 감소시켰다. 구체적으로 저 지위 집단원은 지위 정당성이 낮을 때는 내집단 편애를 보였으나 지위 정당성이 높을 때는 외집단 편애를 보였다. Jost와 Burgess(2000)는 고 지위 집단원에 비해 저 지위 집단원에서 내집단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가 더 크게 나타나며 지위의 정당성 지각이 저 지위 집단에게는 양가성의 증가와 연관되나 고 지위 집단에서는 양가성의 감소와 연관됨을 검증하였다.

비교 영역에 대한 가치평가

사회정체이론(Tajfel & Turner, 1986)에 의하면 자신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열등한 것으로 평가될 때, 사람들은 사회정체감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비교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가치를 평가절하 할 것으로

예상된다. Crocker와 Major(1989)도 불이익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영역의 가치를 선택적으로 평가절하하여 자존감을 보호한다고 가정하였다. 실제로 Schmader와 Major(1999)의 연구에서는 성격검사 결과(개인 점수에 관한 정보 제공은 없음)가 외집단이 내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때는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을 때보다 그 성격 특질의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런 결과들은 두 집단의 지위가 동등한 경우들로서 만약, 지위의 차이가 나는 두 집단의 성과를 비교하게 된다면 고 지위 집단이 우세한 영역을 오히려 가치있게 여기는 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Schmader, Major, Eccleston, & McCoy, 2001). 비교영역의 가치평가는 자기-보호적 관심뿐 아니라 그 영역에서 누가 우세한 지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위가 다른 두 집단간 비교가 일어날 때 저 지위인 외집단이 내집단을 능가할 때는 그 영역에 대해 쉽게 평가절하가 일어나지만 고 지위인 외집단이 내집단을 능가할 때는 그 영역의 평가절하가 그리 쉽지 않게 된다. 이런 비대칭적인 평가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지위 위계에 대한 정당성 지각이다. 지위의 차이가 정당하게 지각되면 고 지위인 외집단이 저 지위인 내집단보다 우세할 때 평가절하는 일어나기 힘들며 따라서 고 지위인 외집단이 우세할 때나 저 지위인 내집단이 우세할 때나 그 영역에 대한 가치 평가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지위차이의 발생과정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 되면 고 지위인 외집단이 우세하더라도 쉽게 평가절하가 일어날 수 있게 되므로 고 지위인 외집단이 우세할 때보다 저 지위인 내집단이 우세할 때 그 영역에 대한 가치평가가 더 높아지게 된다.

사회 비교의 대상과 자격에 대한 평가

Major(1994: Crocker & Major, 1989)는 사회정의와 상대적 결핍에 관한 사회심리 이론들의 중심된 구성개념인 자격(entitlement 또는 deservingness)에 대한 평가(Crosby, 1982)가 성과(outcome)의 사회적 분배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감정적, 평가적 및 행동적 반응에 중요한 심리적 매개변인이 된다고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신이 받을만한 정당한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가치있는 성과를 받지 못할 때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느끼게 된다. 자격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들 중에 사회비교의 대상과 정당성의 평가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받을만한 지를 평가할 때 집단 내 비교가 보다 더 수월하며 비교 대상이 자신과 유사하며 따라서 비교의 진단가를 더 높게 보기 때문에 집단 간 비교보다 집단 내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비교 대상은 성과 분배에 대한 정당성의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성과의 분배를 정당한 것으로 보면(예를 들어, 성과에 대한 내부귀인) 자신의 개인적인 자격을 집단 간 비교보다는 집단 내 비교에 근거해서 산정하기가 더 쉽다. 반대로 성과의 분배를 불공정한 것으로 보게 되면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자신의 자격을 산정하게 된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불이익 집단에 속해 있지만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보면 자신의 자격을 자신과 동일한 집단 내에 있는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산정하게 되어 크게 불평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불이익 집단에 소속된 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불이익 집단의 사람들은 이익 집단(advantaged group)과 비교하여 자신의 자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성과에 대해 분노하게 되고 더 큰 성과에 대한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게 된다. 말하자면, 집단 내 비교는 불이익 집단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대적인 불리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막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분배가 정당하다는 신념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대조적으로, 이익 집단(advantaged group)과의 집단 간 비교는 불이익 집단으로 하여금 낮은 성과를 인식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분배의 정당성이 의문시되게 만든다.

차별 귀인

Major 등(2002)의 연구는 차별에 대한 지각이 집단 지위와 정당성 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남을 검증

하였다. 한 사회 내의 지위의 위계가 개인적인 지위 이동이 허용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즉, 지위 체계가 침투가능하다는 신념을 주 근간으로 하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신념을 개인차 변인으로 하여 고/저 지위의 집단원이 외집단원(저/고 지위)으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상황의 원인을 차별로 지각하게 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들은 자격에 대한 신념이 결과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클수록 자신의 지위가 정당하다고 믿게 되고 그런 믿음은 고 지위 집단원에게는 자신의 가치와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반면, 저 지위 집단원에게는 자신의 가치없음과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으로써 거부에 대해 상이하게 반응할 것이라 것이다. 이들은 미국내 지배적인 인종집단인 유럽계 미국인과 소수 인종집단인 라틴계/아프리카계/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남 녀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저 지위 집단원(라틴계/아프리카계/아시아계 미국인 또는 여성)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클수록 고 지위 집단원(유럽계 미국인 또는 남성)으로부터의 거부를 차별로 덜 지각하였고 고 지위 집단원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클수록 저 지위 집단원으로부터 거부 당했을 때 그 거부를 차별(즉 역차별)로 더 지각하였다.

안미영과 김혜숙(2003)의 연구에서는 Major 등(2002)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외집단원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상황을 설정하되 (성별)집단지위의 고저와 지위의 정당성 및 안정성을 실험적으로 조변하였고 정당성과 안정성의 변인이 결합하여 사회체제의 정당성을 시사한다고 가정하였다. 지위의 정당성이 높고 안정될 때와 지위 정당성이 낮고 그 지위가 변할 가능성이 높을 때(낮은 안정성)는 사회정당성이 높게 지각되고, 지위의 정당성이 높으나 그 지위가 변할 가능성이 높을 때(낮은 안정성)와 지위 정당성이 낮으나 그 지위가 안정될 때는 사회정당성이 낮게 지각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집단 지위 별, 사회정당성의 단순효과는 없었으나 지위와 사회정당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Major등(2002)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정당성이 높게 지각되는 조건일수록 고 지위 집단원은 저 지위 집단원으로부터의 거부에 대해 차별로 귀인을 더 많이 하였으며 저 지위 집단원은 고 지위 집단원으로부터의 거부에 대해 차별 귀인을 더 적게 하였다.

불이익집단을 규정하는 속성에 대해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신념도 정당화의 신념으로 작용해서 그 불이익집단에 소속됨으로 인해 받게 되는 부적 성과를 차별로 귀인하게 되는 정도에 영향을 준다(Major & Crocker, 1993). 체중과 빈곤과 같은 속성은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속성보다는 통제가능하고 변화가능한 것으로 인식된다. 체중을 통제가능한 것으로 볼수록 과다체중자 본인조차도 과다체중에 대해 부적 태도를 보이게 되며(Crandall, 1994) 심지어 자신이 편견의 표적임이 뻔히 드러나는 경우에조차도 차별 당했다고 보지 않는다(Crocker, Cornwall, & Major, 1993). 나아가 과다체중인 여성에게 체중이 통제불가능하다는 신념을 점화시켰을 때에는 통제가능하다는 신념을 점화시켰을 때에 비해 부적 성과에 대해 차별귀인을 더 많이 하였다(Amato, Crocker, & Major, 1995; Jost & Major(2001)에서 재인용).

“합법화 위기”의 통합적 설명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저 지위 집단에서 나타나는 정당성 변인의 상이한 효과가 여러 다양한 반응들에서 나타남을 보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Jost 등(2001)은 “합법화 위기(legitimation crisis)”란 개념을 빌어 통합 설명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자아 정당화(ego justification)의 동기와 집단적 차원에서의 집단 정당화(group justification)의 동기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체제 정당화(system justification)의 동기들 간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념이나 정의 또는 집단간 관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얻어진 증거들을 통합하여 Jost 등(2001)은 고 지위 집단원에게는 자아 정당화, 집단 정당화, 체제정당화의 동기들이 일관되며 양립되는 반면에 저 지위의 집단원에게는 이들 동기들이 종종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저 지위 집단의 지위가 비합법적으로 여겨질 때, 사

회정체성이 높아져서 내집단 편애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것(Ellemers 등, 1993)에 대해 지위의 비합법성은 체제를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하며 이것은 갈등관계에 있는 집단 정당화의 동기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내집단편애와 같은 반응이 나오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이와 반대로 체제 정당화가 증가되면 집단 정당화는 감소된다고 설명한다. 말하자면 저 지위 집단의 지위가 합법적일 때는 내집단 편애는 줄어들고 오히려 외집단 편애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 불이익 집단원이 받는 부적인 성과를 차별이나 편견에 귀인시킬 때 오히려 자존감이 보호된다는 연구결과들(예; Crocker & Major, 1989)은 자아 정당화의 요구와 체제 정당화의 요구 간의 갈등으로 설명된다. 저 지위 집단원에게서 자존감과 같이 자아를 정당화시키는 변인들은 차별의 부인과 같이 체제를 정당화시키는 변인들과 부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불이익 집단원이 자신에게 오는 부적 성과를 체제의 불합리성을 시사하는 차별이나 편견에 귀인시킬 수 있을 때 자존감의 상실을 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들의 “저하된 자격효과(depressed entitlement effect)”를 제시한 연구들(Jost, 1997; Major, 1994, Major, McFarlin, & Gagnon, 1984)은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양과 질의 일을 했으면서도 남성들이 스스로 받을만하다고 여기는 임금수준보다 더 낮게 스스로의 임금을 책정함을 보고했다. 말하자면 현재 상태(status quo)에 적응하는 것(즉, 체제 정당화의 동기에 따르는 것)은 자기-평가와 자기-가치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 지위 집단원은 자아 정당화와 집단 정당화의 요구 간의 갈등도 경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저 지위 집단원의 사회정체가 낮으면 그들은 자신을 내집단원으로 보다는 개인으로 더 보기 쉬우며, 집단의 전형적 인물로 보다는 특이한 개인으로 자신을 분류하며, 집단의 이질성이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반응을 보인다(Ellemers, 2001; Wright, 2001). Steele(1997)은 학문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우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내집단원들과 비-동일시(dis-identify)하고 보다 성공적인 외집단원과 동일시하게 된다고 제안한다. 그래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대학에서의 성공을 가장 잘 예견하는 예견자는 백인 친구의 수였다. 이런 결과들은 저 지위 집단원에게서 낮은 집단 정당화의 동기는 자아 정당화를 위한 태도나 행동이 증가되게 하며, 반대로 높은 자아 정당화의 동기는 낮은 집단 정당화로 이끄는 것을 보여 준다.

본 연구의 목적

안미영과 김혜숙(2003)은 실험연구를 통해 집단의 지위와 (사회)정당성 간의 상호작용으로 거부 상황에 대한 차별귀인이 일어남을 검증한 바 있다. 그들은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인 지위고저와 정당성 및 안정성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설정하였다. 예언의 근거는 Major 등(2002)의 정당성이론에서 빌려왔으며 안정성 변인을 정당성 변인과 결합하여 사회정당성을 가정하여 예언하였다. 즉, 집단의 지위가 정당하면서 그 지위가 안정될 때와 지위의 정당성이 낮으면서 그 지위가 불안정할 때는 사회정당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되고 반대로, 집단의 지위가 부당하지만 그 지위가 안정되어 있을 때와 지위가 정당하지만 그 지위가 불안정할 때는 사회정당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고 지위 집단원은 사회정당성이 높을 때 사회정당성이 낮을 때보다 거부에 대해 차별로 더 귀인하게 될 것이지만 저 지위 집단원은 사회정당성이 높을 때 사회정당성이 낮을 때보다 오히려 거부에 대해 차별로 덜 귀인할 것으로 예언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위에 따른 사회정당성의 단순효과는 없었으나 지위와 사회정당성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고 지위 집단원은 사회정당성이 높게 지각될 때, 낮게 지각될 때보다 성차별귀인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인 반면에 저 지위 집단원은 사회정당성이 높게 지각될 때, 낮게 지각될 때보다 성차별귀인을 더 적게 하는 경향이였다. 이런 결과에는 거부당한 직책(부경영자)에 대한 적합도와 (부경영자로서의) 역할담당능력에 대한 평가와 같은 자격에 대한 평가가 매개로 작용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가 실험적으로 변인들을 조작하였기 때문에 인위적이며 실험참가자들이 원고로 주어진 조작

된 상황을 인지적으로 판단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 있어서 결과의 외적 타당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집단 지위의 안정성 변인의 효과에 대해 좀 더 연구할 필요를 남겨 놓았었다.

이러한 한계와 필요에 따라 본 연구는 실험으로 조작된 것이 아닌 실제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지위 고저와 그 지위의 정당성과 지위의 안정성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조사 방법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집단의 구조적 측면들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각된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이 자신이나 내집단이 차별을 당한다고 지각하는 정도와 어떻게 연관될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안정성 변인의 효과에 대해서도 정당화 이론에 따라 독자적인 예언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집단간 갈등을 이루는 대표적인 것이 성별과 지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성별집단과 지역집단이란 두 집단 상황을 설정하였다. 지각된 구조적 변인들의 효과는 상이한 집단속성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일어나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럴 때 결과의 외연성은 커진다고 보겠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성별집단과 지역집단이란 두 가지 다른 속성의 집단에 대해 조사 연구를 함으로써 지각된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이 동일하게 작용하는 지를 알아보며, 선행의 연구들에서처럼 지위와 정당성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안정성 변인에 대한 정당화이론에 따른 예언을 검증하려는데 있다.

차별 경험의 지각에 대한 집단 지위와 정당성 및 안정성의 효과

안미영, 김혜숙(2003)의 실험연구에서는 외집단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차별귀인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거부와 같은 부적 성과를 실제로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얼마나 차별받았다고 지각하는지의 주관적인 평가를 측정하였다.

정당화 이론에 따라 차별경험의 지각에 대한 집단 지위와 정당성의 효과를 예상해 보고자 한다. 내집단의 지위를 높게 평가할수록 자아 정당화의 동기와 체제 정당화의 동기는 양립될 수 있으므로 차별경험은 적게 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지위의 부적 효과). 또한 내집단의 지위를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그 지위 체제의 정당성을 높게 보는 것이 되므로 정당하다고 볼수록 전반적으로 차별경험을 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당성의 부적효과).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단의 지위와 그 지위의 정당성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말하자면, 내집단 지위가 낮게 평가될 때는 체제 정당화와 자아 정당화의 동기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지위 정당성이 높게 지각될수록 그 지위 체제는 정당하게 지각되므로 그에 따라 자아정당화의 동기는 낮아지고 따라서 차별경험의 지각은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지위 정당성이 낮게 지각되면 체제의 정당성이 낮아지므로 자아 정당화의 동기를 따르게 되고 따라서 차별경험의 보고가 커질 것이다. 내집단의 지위가 높게 평가될 때는 두 동기간의 갈등이 적어지므로 지위 정당성 변인이 차별경험 지각에 미치는 부적 효과는 줄어들 것이다. 즉, 내집단의 지위가 낮게 평가될 때는 정당성의 변인이 차별경험의 지각에 미치는 효과는 큰 부적 관계를 이루지만 내집단의 지위가 높게 평가될 때는 이런 부적 관계는 약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지위와 정당성의 상호작용 효과).

집단 지위의 안정성 변인이 차별경험의 지각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직접 다룬 연구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정당화이론에 따라 결과를 예상해 볼 수는 있다. 안정성 변인은 집단 전체의 지위의 변동가능성을 함축하는 것이므로 체제정당화의 동기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고 차별경험의 지각이란 반응은 자아정당화의 동기를 요구하는 반응이다. 따라서 체제정당화와 자아정당화의 두 동기가 저 지위 집단원에서는 갈등을 일으킬 것이고 고지위 집단원의 경우는 두 동기가 양립될 수 있다.

안정성의 변인이 체제 정당화에 어떻게 기여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다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먼저, 만일 안정성이 높은 것이 그 체제에 가치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면, 안정성이 높을수록 체제 정당성은 높게 지각되고 따라서 차별경험은 덜 보고하게 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위와 안정성 간의 상호작용이 예상되는데, 고 지위 집단에서는 체제정당화의 동기와 자아정당화의 동기가 양립되므로 안정성

의 변인에 따라 차별경험의 지각이 별로 영향받지 않을 것이지만 저 지위 집단에서는 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체제 정당성이 높게 지각되므로 자아 정당화의 동기는 감소되고 따라서 차별경험의 지각이 낮아질 것이다. 반대로, 안정성이 낮아지면 체제 정당성이 낮아지므로 자아정당화의 동기는 올라가고 따라서 차별경험의 지각이 높아질 것이다. 이 경우, 안정성의 변인은 차별경험의 지각과 부적인 관계로 나타날 것이며 고지위의 경우보다 저 지위의 경우에 그 부적 효과가 뚜렷할 것이다.

다른 대안적 예언은 지위 안정성이 높은 것은 그 지위 체제의 가치를 오히려 낮출 것이란 가정이다. 집단 내 개인의 이동가능성이 있을 때(즉, 집단 permeability가 높을 때) 그것이 체제 정당화로 기능하는 것처럼(Major 등, 2002; Jost 등, 2001), 집단 전체의 이동 가능성이 있는 것(즉, 안정성이 낮을 때)이 체제 정당화로 기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가정이 옳다면, 안정성이 낮을수록 차별경험은 덜 보고될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위와 안정성의 상호작용을 예상하게 된다. 즉, 고 지위집단에서는 안정성의 변인에 따른 차별경험의 지각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저 지위 집단은 안정성이 낮아질수록 체제 정당성이 높게 지각되므로 자아 정당화 동기는 감소되고 따라서 차별경험의 지각이 낮아질 것이며, 안정성이 커질수록 체제 정당성은 낮게 지각되므로 자아 정당화의 동기는 높아지고 따라서 차별경험의 지각은 높아질 것이다. 이 경우, 안정성의 변인은 차별경험의 지각과 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이며 그 정적 효과는 고지위의 경우에서보다 저 지위의 경우에서 더 뚜렷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위 안정성이 집단 내 이동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기능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지위가 안정된다고 볼수록 그 사회체제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되며 지위가 안정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집단의 지위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지각될 때, 그 사회의 지위체제를 정당하게 볼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렇다면, 안정성은 차별경험의 지각과 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이고(안정성의 정적 효과), 그 정적 효과는 고 지위에서보다 저 지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지위와 안정성의 상호작용 효과).

차별경험의 지각과 개인차 변인들의 관련성

본 조사에서는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 외에도 개인적 자존감과 집단자아존중, 형평규범과 평등규범을 옹호하는 정도 등의 개인차 변인들이 차별경험의 지각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개인 자존감. 차별경험의 부인은 사회체제를 정당화시키는 기능을 하며 저 지위 집단인 여성이 보이는 저하된 자각감과 관련되어 있다(Jost, 1997; Major, 1994, Major, McFarlin, & Gagnon, 1984). 또 부적 성과에 대해 차별로 귀인하는 것이 불이익 집단의 자존감을 유지시켜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Crocker & Major, 1989; Crocker, Cornwell, & Major, 1993; Crocker, Voelkl, Testa, & Major, 1991). 이 결과들은 차별경험의 지각이 개인 자존감과 정적으로 상관될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차별로의 귀인과 같은 비합법성의 지각이 불이익 집단의 자존감과 안녕감에 부적인 함축을 가질 것도 제안되고 있어서(Major & Schmader, 2001) 차별경험의 지각이 개인 자존감과 부적으로 상관될 것을 시사한다. 또 한편으로 안미영, 김혜숙(2003)의 실험연구에서는 개인 자존감과 성 차별귀인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본 조사를 통해 차별경험의 지각과 개인 자존감이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재검해 보고자 한다.

집단자아존중. 집단자아존중은 사회정체성을 측정하는 한 지표이다. 사회정체가 불만족스러우면 사람들은 그 집단을 떠나서 다른 좀 더 정적인 특징을 지닌 집단에 합류하든지 자신의 집단을 좀 더 정적으로 만들려고 한다(Tajfel & Turner, 1986). 따라서 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집단의 정당성을 높이는 태도나 반응들이 커질 것이다. 반면에, 집단 정체성이 낮으면 사람들은 자신을 내집단 성원보다는 개인으로 보는 경향이 일어나며 집단 이탈과 개인적 이동을 선택하는데 특히 집단이 평가절하 될 때 이런 반

응이 나타난다는 결과들이 있다(Ellemers 등, 1993; Wright 등, 1990). 이런 결과는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거나 정당화하는 것과 내집단의 이익을 방어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양립되지 않음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자아존중이 높아질수록 (내집단편애와 같이) 집단의 정당성을 높이는 반응이 커질 것이므로 자아 정당성을 높이는 차별지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안미영, 김혜숙(2003)의 연구에서도 집단자아존중은 성차별귀인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아울러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이 집단자아존중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도 알아보려고 한다. 김금미·한영석(2002)의 연구에서는 여성응답자만을 사용하였는데 정당성과 안정성의 변인이 사회정체성에 부적인 회귀를 보였다. 반면, 남성 응답자만을 사용한 연구(김금미, 한덕웅, 한영석, 2003)에서는 안정성의 변인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지위와 정당성의 변인이 사회정체성에 정적인 회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이 사회정체성을 예견하는 효과가 달라졌다. 본 조사에서는 남녀 응답자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조사 1: 성별집단의 경우) 통합적인 결과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뿐 아니라 지역집단의 경우(조사 2)에서도 마찬가지로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이 집단자아존중이란 사회정체성에 어떻게 회귀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연구결과의 외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한다.

평등규범과 형평규범. 성과의 분배가 얼마나 형평, 평등, 필요와 같은 분배 정의의 규칙에 따랐는지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도 그 사회체제의 정당성이 영향을 받는다(Major, 1994; Major & Schmader, 2001). 어떤 분배규칙이 선호되느냐는 성과의 유형, 관계의 성질, 국가 등 맥락 요인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로써 미국인은 정치와 가정과 같은 사회화 영역에서는 평등을, 경제적 영역에서는 형평을, 기회분배의 면에서는 평등을, 성과분배에서는 형평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Hochschild, 1981; Kluegel & Smith, 1986). 또, 남성은 여성보다 보상분배에서 형평에 더 큰 비중을 두며, 필요는 덜 중요시한다(Major, 1994).

본 조사에서는 평등규범이나 형평규범의 찬성정도가 차별지각과 어떻게 연관될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차별을 많이 경험한다고 지각할수록 이런 규범들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더 크게 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의 방향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고 지위 집단에서는 형평규범이, 저 지위 집단에서는 평등규범이 차별경험의 지각에 예언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별경험의 지각과 사회인구적 변인들의 관련성

본 연구를 위해 두 개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1은 성별집단의 지각된 구조적 변인들이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이며 조사 2는 지역집단의 지각된 구조적 변인들이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사회인구적 변인들로 조사된 것은 성별(조사 1), 조사지역(조사 1), 출신지역, 연령, 직업, 학력, 경제수준 등이었으며 이들이 차별경험의 지각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나-차별 경험과 내집단-차별 경험의 지각

본 조사에서는 성별이나 출신지역이란 특정 집단에 소속됨으로서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내집단이 차별을 얼마나 경험하는지를 평가하게 하였다. 선행연구들(Crosby, Pufall, Snyder, O'Connell, & Whalen, 1989; Olson & Hafer, 2001; Taylor, Wright, & Moghaddam, & Lalonde, 1990; Taylor, Wright, & Porter, 1993)에서 검증된 것처럼 나-차별경험보다는 내집단-차별 경험이 더 많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전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차별경험에 대한 지각된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의 효과는 집단의 속성, 즉 성별이건 지역이건에 상관

없이 동일하게 작용할 것이다.

2. 지각된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 중 집단 지위와 정당성은 차별경험에 부적으로 연관되지만 안정성은 정적으로 연관될 것이다.
3. 집단 지위와 정당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서 정당성의 부적 효과는 집단의 지위가 높게 지각될 때 보다 집단의 지위가 낮게 지각될 때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4. 집단 지위와 안정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서 안정성의 정적 효과는 집단의 지위가 높게 지각될 때 보다 집단의 지위가 낮게 지각될 때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5. 집단자아존중은 차별경험의 지각과 부적으로 연관될 것이다.
6. 분배정의의 규범들은 차별경험의 지각과 정적으로 연관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형평규범은 고 지위자의 차별경험의 지각과 더 관련될 것이며, 평등규범은 저 지위자의 차별경험의 지각과 더 관련될 것이다.
7. 나-차별 경험보다 내집단-차별 경험의 지각이 더 클 것이다.

조사 1: 성별집단의 지위, 정당성, 및 안정성의 구조적 변인이 차별경험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

조사 1에서는 대학생과 일반인 남녀 응답자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성별집단의 지위가 얼마나 된다고 지각하는지, 그 집단이 누리는 지위를 얼마나 정당하게 보는지, 또 그 지위가 얼마나 계속될 것으로 보는지의 주관적 평가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성별집단(내집단)이 성별 때문에 차별받은 정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또한 개인적인 자존감과 집단자아존중을 측정하였고 형평규범과 평등규범을 찬성하는 정도들을 측정하였으며 사회인구적 변인들을 조사하였다.

방 법

조사대상자

본 조사 연구에는 경기지역과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총 630명이 참여하였다. 이중 일반인은 213명(남 107명, 여 106명)이었으며 대학생은 417명(남 216명, 여 201명)이었다. 대학생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2.5세이며 범위는 18세~30세이었으며 일반인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4.0세이며 범위는 20세~70세이었다.

설문지

설문지의 첫 장에는 지위고저, 정당성, 안정성, 및 차별경험의 문항들이 무선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개인차 변인들에 관한 문항들은 그 다음 장에, 마지막으로 사회인구적 변인들에 관한 문항들이 제시되었다. 사회인구적 변인들을 제외한 모든 문항들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1) 집단의 지위 고저

자신이 속한 성별집단의 지위를 얼마나 높게 보는지를 평정하기 위하여 경제적 및 사회적 측면과 주도권으로 평정하게 하였다. 사용된 문항들은 “우리 사회에서 남성들은 경제적으로 여성들보다 우월하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더 높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진다”의 3문항이었다. 평정점수는 응답자의 성별에 맞추어 수정되었다.

2)지위의 정당성

자신이 속한 성별집단이 차지하는 지위를 얼마나 정당하게 보는 지를 평정하기 위하여 “현재 나의 성별집단(남성/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공정하고 정당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의 성별집단(남성/여성)에게 주어진 지위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집단 간의 지위가 차이 나는 것은 능력에 따른 정당한 결과이다”의 3 문항을 사용하였다.

3)지위의 안정성

자신이 속한 성별집단이 차지하는 지위를 얼마나 안정된 것으로 보는 지를 평정하기 위하여 “현재의 남성과 여성 집단 간의 세력관계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성별집단(남성/여성)이 현재 차지하는 지위는 지속될 것이다”의 2 문항을 사용하였다.

4)차별경험의 정도

차별경험의 정도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성별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얼마나 차별받았다고 지각하는 지를 알아 보았다. **자신의 차별경험**은 “나는 나의 성별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 “나는 나의 성별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나는 나의 성별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다”의 3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자신이 속한 **성별집단의 차별경험**은 “나의 성별집단(남성/여성)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 “나의 성별집단(남성/여성)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나의 성별집단(남성/여성)은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다”의 3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5)개인차 변인들

응답자의 개인차를 알아보기 위해 Rosenberg(1965)의 **자존감척도** 10문항, **집단자아존중척도**(김혜숙, 1994)에서 발췌한 6문항, **평등규범** 2문항(“나는 우리 사회에서 출신지역, 학력, 또는 성별 등등에 따른 이득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사회의 이익 분배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평규범** 2문항(“나는 비록 특정 집단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득이 돌아간다 해도, 그것이 능력이나 실력에 근거한 것이라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사회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이득이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을 제시하였다.

6)사회인구적 변인들

마지막으로 자신의 출신지역, 연령, 성별, 직업, 학력, 경제수준 등과 같은 사회인구적 측면에 대한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대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아주대학교와 부산대학교의 교양심리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수업시간에 집단으로 응답하였다. 일반인들은 평생교육원의 학생들이거나 학부모, 및 직장인들로서, 강의시간에 응답하거나 개별적으로 응답하였다.

결과 및 논의

차별경험 지각에 대한 성별집단의 지위의 고저, 정당성 및 안정성의 효과

성별집단의 지위 고저, 정당성, 안정성, 나-차별경험과 내집단-차별경험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신뢰도는 .65~.84에 걸쳐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지위의 고저, 정당성, 및 안정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평균적으로 남성($M = 3.84, sd = .49$)은 여성($M = 2.08, sd = .52$)보다 자신의 성별집단의 지위를 더 높게 평가하며($t(627) = 43.61, p < .01$) 그 지위의 정당성($M_M = 2.64, sd = .67; M_F =$

2.18, $sd = .58$)도 더 높게 평정하였다($t(627) = 9.12, p < .01$). 그러나 지위의 안정성 정도에서는 남녀 간($M_{남} = 2.99, sd = .85; M_{여} = 3.02, sd = .79$)의 차이가 없었다($t(627) = -.44, n.s.$).

표 1. 성별에 따른 지위고저, 정당성 및 안정성 평정의 평균(표준편차)

	남성	여성	t 검증
지위고저	3.84(.49) (n=322)	2.08(.52) (n=307)	43.61(df=627) $p < .01$
정당성	2.64(.67) (n=323)	2.18(.58) (n=306)	9.12(df=627) $p < .01$
안정성	2.99(.85) (n=323)	3.02(.79) (n=306)	-.44(df=627) n. s.

*지위고저, 정당성, 및 안정성의 평정은 1점-5점 척도상의 점수이며 점수가 클수록 그 정도가 큰 것임.

차별경험의 지각에 대한 지위고저, 정당성 및 안정성의 세 변인들의 예측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지위 고저와 지위의 정당성과 안정성의 변인은 나-차별경험에서나 내집단-차별경험에서나 동일하게 유의있는 예측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경험을 평균하여 전체적인 차별경험의 정도를 산정하였고 그에 대한 회귀분석을 제시하였다(표 2).

표 2. 성별집단 지위의 고저, 정당성 및 안정성변인의 차별경험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B	표준오차	β	t	p	ΔR^2	ΔF	p
지위 고저	-.337	.025	-.462	-13.64	<.01	.313	286.13(1,627)	<.01
지위정당성	-.273	.038	-.247	-7.29	<.01	.047	46.15(1,626)	<.01
지위안정성	.138	.028	.153	4.86	<.01	.023	23.58(1,625)	<.01

$R^2 = .384$ adj $R^2 = .381$ $R = .619$

지위 고저, 정당성, 안정성은 1-5점의 5점 척도상의 점수이며 점수가 클수록 그 정도가 큰 것임.

지위 고저, 정당성 및 안정성 변인의 효과는 예상한 대로 나타났다(가설 2). 자신이 속한 성별집단의 지위를 높게 평가할수록, 그 지위가 정당하다고 볼수록, 자신과 내집단이 차별을 덜 경험한다고 지각하였다($\beta = -.462, -.247, ps < .01$). 그러나 자신이 속한 성별집단의 지위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할수록 자신과 내집단이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beta = .153, p < .01$). 지위의 고저, 정당성 및 안정성의 구조적 변인들 중에서 차별경험을 예측하는 예측력이 가장 큰 것은 지위고저 변인이었으며($\Delta R^2 = .313, p < .01$) 지위 정당성($\Delta R^2 = .047, p < .01$), 지위 안정성($\Delta R^2 = .023, p < .01$)의 순으로 예측력이 있었다. 이 세 변인은 차별경험의 변량을 38.4%정도 설명하였다(회귀식에 대한 $F(3,625) = 129.73, p < .01$).

지위 고저와 정당성 및 안정성 간의 2원 상호작용과 3원 상호작용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 변인들만 설정한 회귀모형에 부가하여 차별경험의 지각에 대해 2원 상호작용의 변인들과 3원 상호작용의 변인들을 위계적으로 회귀 분석해 보았으나 부가적인 상호작용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차별경험의 비교

성별에 따라 차별을 달리 경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을 집단간 변인으로, 차별경험의 종류(나-차별/내집단-차별)를 집단 내 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하였다(표 3). 분석 결과, 차별경험 종류의 주효과($F(1,627) = 203.38, p < .01$)가 나타났다. 예상한대로(가설 7)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이 차별받는 것($M = 2.78, sd = .79$)보다는 자신이 속한 내집단이 더 많이 차별받는 것($M = 3.11, sd = .80$)으로 지각하였다. 성별의 주효과($F(1,627) = 208.98, p < .01$)도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이 자신($M_{남} = 2.44, M_{여} = 3.13, t(627) = -11.94, p < .01$)과 내집단($M_{남} = 2.72, M_{여} = 3.52, t(627) = -14.39, p < .01$)이 차별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리고 이런 남녀의 차이는 나-차별경험보다는 내집단-차별경험에서 더 두드러졌다(차별경험x성별의 상호작용효과 $F(1,627) = 5.38, p < .05$).

표 3. 성별과 경험종류에 따른 차별경험의 평균비교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검증(df,p)
나차별경험	남성	323	2.44	.77	-11.94(df=627) $p < .01$
	여성	306	3.13	.65	
내집단차별경험	남성	323	2.72	.74	-14.39(df=627) $p < .01$
	여성	306	3.52	.63	
전체차별경험	남성	323	2.58	.70	-14.46(df=627) $p < .01$
	여성	306	3.32	.57	

차별경험의 점수는 1-5점의 5점 척도상의 점수이며 점수가 클수록 그 정도가 큰 것임.

차별경험 지각에 대한 성별변인과 지위 정당성 및 안정성변인과의 상호작용 효과

성별에 따라 지위 고저와 지위 정당성의 평정이 다르다는 결과(표 1)는 지위 고저와 정당성 변인이 차별경험을 예측하는 정도가 성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런데, 지위고저 변인은 성별변인과 높은 상관($r=.87$)을 보여 두 변인을 동시에 분석했을 때 결과 해석도 모호해지고 회귀계수의 비교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차별경험에 대한 성별변인과 정당성 또는 성별변인과 안정성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선형모형의 변량 분석을 하였다. 전체차별경험에 대해 성별 변인은 고정변인(fixed factor)으로, 정당성과 안정성의 변인은 연속변인(covariate)으로 하여 주효과, 2원 상호작용(성별x정당, 성별x안정, 정당x안정) 및 3차 상호작용(성별x정당x안정)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선형모형의 분석방법은 범주변인과 연속변인이 혼합된 경우의 회귀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정변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변량분석의 주효과와 동일하며 연속변인에 대한 결과는 회귀분석의 결과와 동일하며 고정변인과 연속변인 간의 상호작용은 고정변인에 따라 연속변인의 회귀계수가 상이한지의 여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분석 결과, 성별변인($F(1, 621) = 8.98, p < .01$)과 안정성($F(1,621) = 4.99, p < .05$)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정당성 변인의 주효과($F(1,621) = 2.82, p < .10$)는 유의 한계 상에 있었으나 성별과 정당성의 상호작용 효과($F(1,621) = 6.68, p < .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 밖의 상호작용들은 효과가 없었다. 성별변인의 주효과와 안정성변인의 주효과는 앞에서 기술된 바와 동일하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차별경험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며 남녀 응답자들은 자신이 속한 성별집단의 지위가 지속될 것으로 볼수록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지각한다.

성별과 정당성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은 성별에 따라 정당성 변인이 전체 차별경험을 예측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다를 수 있다. 상이한 예측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차별경험에 유의한 예측효과를 지닌 변인들인 성별, 안정성, 성별x정당성 변인만을 반영한 일반선형모형을 가정하였고 성별에 따른 회귀계수를

산출하였다. 여성의 경우, 정당성의 회귀계수는 $-.487$ 이며 남성의 경우 회귀계수는 $-.179$ 였다. 이 모형에 따른 모수추정치는 표 4와 같으며 성별에 따른 정당성과 차별경험의 예상되는 관계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표 4. 성별, 안정성, 성별x정당성의 일반선형모형에 따른 차별경험에 대한 모수추정치

모수	B	표준오차	t	p
[성별=0]	3.949	.160	24.621	< .01
[성별=1]	2.626	.153	17.208	<.01
안정성	.144	.029	4.969	< .01
[성별=0] * 정당성	-.487	.059	-8.309	< .01
[성별=1] * 정당성	-.179	.050	-3.605	< .01

성별 0: 여성 1: 남성

정당성, 안정성은 1-5점의 5점 척도상의 점수이며 점수가 클수록 그 정도가 큰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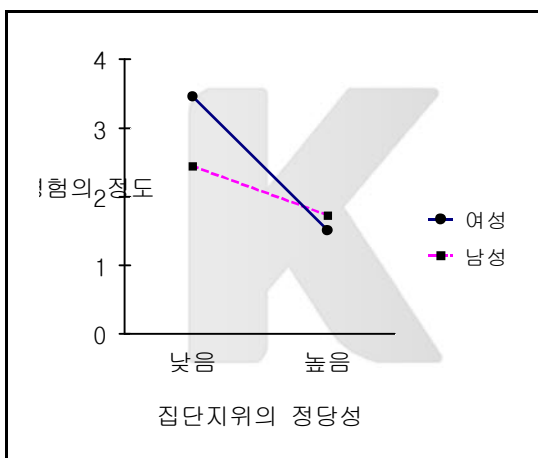


그림 1. 성별에 따른 집단지위의 정당성과 차별경험의 예상되는 관계

그림 1을 보면, 차별경험의 지각에 집단 지위의 정당성 변인이 부적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 부적 효과가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차별경험의 지각을 예측하는 정당성 변인의 회귀계수가 여성의 경우($\beta = -.487$) 남성의 경우($\beta = -.179$)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에서보다 그 지위의 정당성 정도에 따라 차별경험의 지각이 크게 달라질 것을 시사해 준다.

본 조사 결과(표 1 참조), 평균적으로 여성($M = 2.08, sd = .52$)이 남성($M = 3.84, sd = .49$)보다 자신의 내집단 지위를 더 낮게 평가($t(627) = 43.61, p <.01$)하였다. 남녀 집단 간의 지위 차이는 많은 연구들(김금미, 한영석, 2002; 김혜숙, 1994; Crosby, 1982; Major, 1994; Ruggiero & Taylor, 1995, 1997)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으며 Major 등(2002)은 남성을 고 지위 집단으로 여성을 저 지위 집단으로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이렇게 볼 때, 평균적으로 남성을 고 지위 집단으로, 여성을 저 지위 집단으로 대체해 보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로 보건대, 성별x정당성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지위x정당성의 상호작용 효과(가설 3)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저 지위의 집단의 경

우, 그 지위가 정당할 때보다는 부당할 때 차별경험을 더 많이 지각하며 이런 차이는 고 지위 집단원의 경우에서보다 크게 나타날 것을 함축하는 결과이다.

차별경험에 대한 개인차 변인들의 효과

본 조사에서는 차별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차 변인들로서 개인자존감, 집단자아존중, 평등규범 및 형평규범의 찬성정도 등을 설정하였다. 각각의 측정하는 문항들의 신뢰도는 각각 .82(10문항), .48(6문항), .48(2문항), .36(2문항)이었다.

개인차 변인들이 차별경험의 지각을 얼마나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자아존중($\beta = -.098, t = -2.47, p < .05$)만이 유의한 예측효과를 보였다. 그런데, 성별에 따른 개인차 변인들의 평균을 비교하면, 평등규범과 형평규범에서 성차가 나타났다(평등규범 $t(627) = 2.11, p < .05$; 형평규범 $t(627) = 4.23, p < .001$). 남성이 여성보다 평등규범($M_{남} = 3.94(sd = .77), M_{여} = 3.81(sd = .67)$)과 형평규범($M_{남} = 3.91(sd = .71), M_{여} = 3.69(sd = .63)$)을 모두 더 많이 찬성하였다. 이런 성차에 따라 각 개인차 변인이 차별경험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있으므로 성별변인을 고정변인으로 하고 개인차 변인들을 연속변인으로 하여 주효과들과 성별과 평등규범 및 형평규범과의 상호작용을 설정한 일반선형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집단자아존중의 주효과가 매우 유의하였으며($F(1,619) = 4.79, p < .01$), 형평규범의 주효과도 유의하였다($F(1,619) = 3.96, p < .05$). 말하자면, 조사대상자의 집단자아존중이 높을수록 자신이 받은 또는 내집단 소속으로 인한 차별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지각하였고($B = -.210, t = -3.48, p < .01$: 가설 5), 형평규범을 선호할수록 차별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B = .147, t = 2.91, p < .01$: 가설 6). 개인자존감과 평등규범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F_s < 1.0$), 성별x평등규범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였다($F(1,619) = 5.17, p < .05$). 성별x형평규범의 상호작용도 유의 한계에 있었다($F(1,619) = 3.34, p = .068$). 이들 상호작용 효과들은 성별에 따라 평등규범이나 형평규범이 차별경험을 예언하는 정도가 상이함을 나타낸다. 성별에 따른 평등규범과 형평규범의 차별경험의 지각에 대한 회귀계수는 표 5와 같으며 차별경험 지각과의 관계는 그림 2와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5. 성별, 집단자아존중, 형평규범, 성별x평등규범, 성별x형평규범의 일반선형모형에 따른 차별경험에 대한 모수추정치

모수	B	표준오차	t	p
[성별=0]	3.716	.341	10.894	.000
[성별=1]	3.063	.312	9.829	.000
형평규범	.144	.050	2.865	.004
집단자아존중	-.223	.059	-3.785	.000
[성별=0] * 평등규범	.10	.054	1.847	.065
[성별=1] * 평등규범	-.068	.046	-1.488	.137
[성별=0] * 형평규범	-.142	.076	-1.869	.062
[성별=1] * 형평규범	0	.	.	.

성별 0: 여성 1: 남성

집단자아존중, 평등규범, 형평규범은 1-5점의 5점 척도상의 점수이며 점수가 클수록 그 정도가 큰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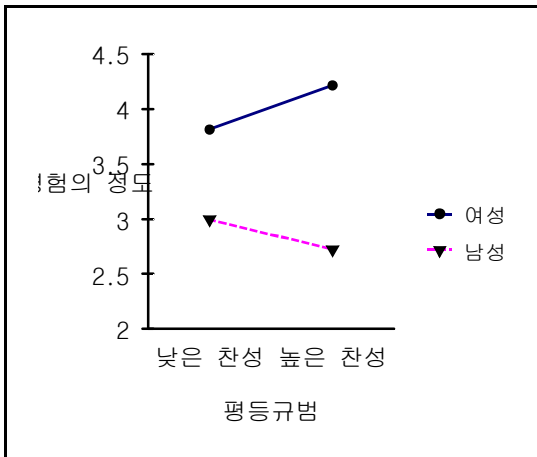


그림 2. 성별에 따른 평등규범의 찬성정도와 차별경험의 예상되는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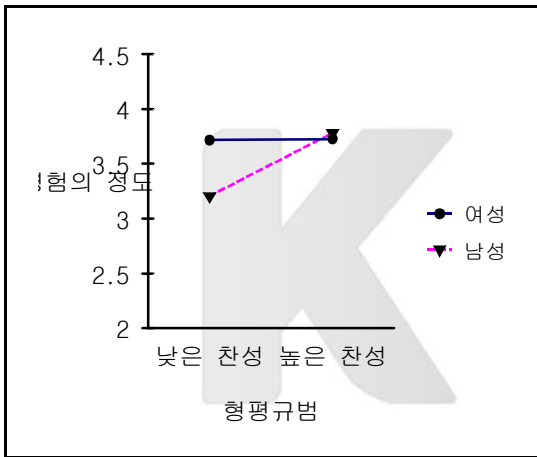


그림 3. 성별에 따른 형평규범의 찬성정도와 차별경험의 예상되는 관계

여성의 경우 평등규범이 차별경험을 예측하는 회귀계수는 $.10(se = .054, t = 1.847, p = .065)$ 으로 유의 한계에 있었고 남성의 경우의 회귀계수는 $-.068(se = .046, t = -1.488, p > .10)$ 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는 평등규범을 찬성할수록 자신과 내집단이 차별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남성의 경우는 평등규범이 차별경험을 예언하는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못함을 알 수 있다. 형평규범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형평규범을 찬성하는 사람일수록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지각하지만($B = .144, se = .05, p < .05$), 이런 관계성은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 준다. 말하자면, 여성은 평등규범을 찬성할수록 차별을 더 경험한다고 지각하나 남성은 형평규범을 찬성할수록 차별을 더 경험한다고 지각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성을 고 지위자로, 여성을 저 지위자로 대체해 볼 때, 가설 6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집단자아존중에 대한 구조적 변인들과 성별변인의 효과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아니지만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이 집단자아존중이란 사회적 정체성을 얼마나 예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세 구조적 변인들의 주효과에 대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부가

하여 세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위계적으로 회귀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지위정당성의 변인의 주효과($\beta = .091, \Delta R^2 = .008, p < .05$)와 지위x정당성의 상호작용 효과($\beta = .209, \Delta R^2 = .009, p < .05$)가 유의하게 집단자아존중을 예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x정당성의 상호작용효과를 각 변인의 최소값과 최대값에서 예상되는 집단자아존중값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4이다. 집단 지위의 정당성이 높을수록 집단자아존중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경향은 특히 집단의 지위가 높을 때 분명해진다. 즉, 저 지위 집단에서는 지위의 정당성이 집단 자아존중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고지위 집단에서는 지위의 정당성이 높아질수록 집단자아존중도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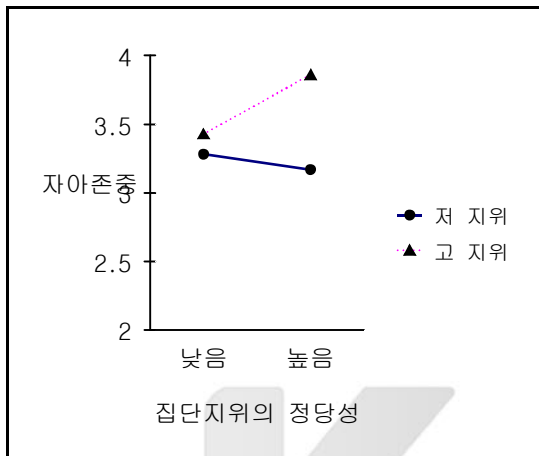


그림 4. 지위고저에 따른 정당성과 집단 자아존중의 예상되는 관계

집단지위의 고저 변인은 응답자의 개별적 반응인 반면에 성별변인은 집단 변인으로서 성별에 따라 소속집단의 지위의 정당성이나 안정성이 집단자아존중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성별은 고정변인으로, 집단지위의 정당성, 안정성의 변인들을 연속변인으로 하여 집단자아존중에 대한 이들의 주효과와 성별x정당성, 성별x안정성, 정당x안정성의 상호작용효과를 설정한 일반선형모형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성별($F(1,620) = 8.68, p < .01$)과 성별x안정성($F(1,620) = 5.26, p < .05$)이 유의하였다. 여성($M = 3.49, sd = .42$)은 남성($M = 3.47, sd = .45$)보다 집단자아존중이 높으며 남성의 경우는 안정성에 따라 집단자아존중이 영향을 받지 않으나 여성의 경우는 집단지위의 안정성이 낮아질수록 집단자아존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표 6과 그림 5)

표 6. 집단자아존중에 대한 성별, 정당성, 안정성, 성별x정당성, 성별x안정성, 정당x안정성의 일반선형모형에 따른 모수추정치

모수	B	표준오차	t	p
[성별=0]	3.710	.240	15.45	.000
[성별=1]	3.156	.268	11.75	.000
정당성	.093	.102	.915	.361
안정성	.012	.083	.147	.883
[성별=0] * 정당성	-.084	.056	-1.50	.135
[성별=1] * 정당성	0	.	.	.
[성별=0] * 안정성	-.101	.044	-2.29	.022
[성별=1] * 안정성	0	.	.	.
정당성 * 안정성	.038	.031	.123	.902

성별 0: 여성 1: 남성

정당성, 안정성은 1-5점의 5점 척도상의 점수이며 점수가 클수록 그 정도가 큰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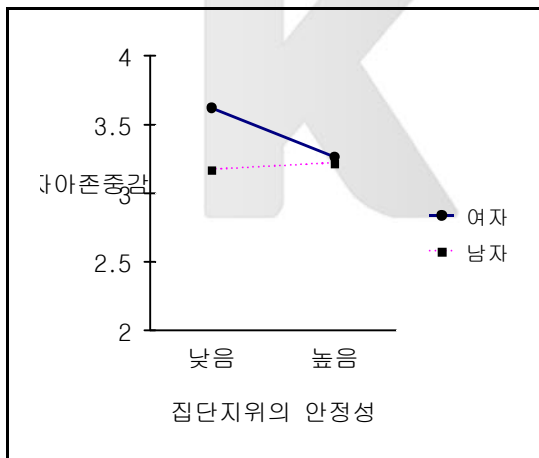


그림 5. 성별에 따른 집단지위의 안정성과 집단자아존중의 예상되는 관계

개인차변인에 대한 결과들을 보면, 개인 자존감은 차별경험의 귀인을 예측하지 못하여 선행연구(안미영, 김혜숙, 2003)와 동일한 결과가 얻어졌으며, 집단자아존중은 예상대로 차별경험의 지각을 부적적으로 예견하였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집단구조적 변인들의 집단자아존중과의 관련성은 선행의 연구들(김금미,한영석, 2002; 김금미,한덕웅,한영석, 2003)의 결과를 묶어서 볼 수 있게 하였다. 지위x정당성의 상호작용이 나타나 고 지위자에서는 정당성 변인에 따라 집단자아존중이 정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저 지위자에서는 정당성 변인의 효과는 거의 없었다. 고 지위자를 평균적으로 남성으로, 저 지위자를 평균적으로 여성으로 대체한다면 정당성 변인은 집단자아존중에 대해 남성에서만 정적 효과를 가질 것을 시사해 준다. 반면, 여성에서는 집단 지위의 안정성 변인이 집단자아존중에 부적 효과를 보였으며 남성에서는 안정성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

평등규범과 형평규범 중 형평규범만이 차별경험의 지각에 대해 예상한 방향으로 정적인 예측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그 두 규범은 성별과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형평규범과 평등규범의 회귀를 살펴보면, 형평규범은 남성에서만 효과를 나타내며, 평등규범은 여성에서만 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남성은 형평규범을 찬성할수록, 여성은 평등규범을 찬성할수록 차별경험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고 지위집단에서는 형평규범이, 저 지위집단에서는 평등규범이 차별경험의 지각에 예언효과를 가질 것이란 예상과 일치되는 것이다.

차별경험에 대한 사회인구적 변인들의 영향

본 조사에서 조사된 사회인구적 변인들 중에서 성별집단으로 인한 차별경험에 관련될 것으로 짐작되는 응답자유형(대학생, 일반), 조사지역(경기, 부산), 학력, 경제수준 및 출신지역 등이 차별경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을 고정변인으로 하여 주효과만을 설정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은 조사지역($F(1,597) = 9.18, p < .01$)과 경제수준($F(3,597) = 2.72, p < .05$)이었다.

조사지역 별로 나타난 전체차별의 평균치는 부산지역 2.86($sd = .71, n = 301$), 경기지역 3.02($sd = .76, n = 329$)로서 경기지역이 성별집단으로 인한 차별을 부산지역 보다 더 많이 경험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지역에서 보다 보수적으로 짐작되는 부산지역보다 실제로 성적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해서라기보다는 의식 수준 상의 차이로 여겨진다.

경제 수준은 상($n = 5$), 중상($n = 288$), 중하($n = 302$), 하($n = 31$)의 구분이었는데 경제수준이 '상'인 조사대상자들($M = 2.17, sd = .42$)이 '중상'($M = 2.99, sd = .70$), '중하'($M = 2.92, sd = .76$) 및 '하'($M = 2.87, sd = .87$)의 경제수준인 조사대상자들보다 유의하게 차별경험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udent Newman Keuls test: $p < .05$).

조 사 2: 출신지역 집단의 지위, 정당성, 및 안정성의 구조적 변인이 차별경험 지각에 미치는 영향

조사 2에서는 출신지역 집단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서울/경기 지역과 부산/경상도 지역, 광주/전라도 지역, 대전/충청도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일반인 응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출신지역 집단의 지위가 얼마나 된다고 지각하는지, 그 집단이 누리는 지위를 얼마나 정당하게 보는지, 또 그 지위가 얼마나 계속될 것으로 보는지의 주관적 평가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출신지역 집단(내집단)이 출신지역 때문에 차별받은 정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또한 개인적인 자존감과 집단자아존중을 측정하였고 형평규범과 평등규범을 찬성하는 정도들을 측정하였으며 사회인구적 변인들을 조사하였다.

지역집단이란, 조사 1의 성별집단과는 다른 상이한 속성의 집단을 설정하여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의 차별경험 지각에 미치는 효과가 성별집단의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가설 1)이 조사 2의 주 목적이다.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과 개인차 변인들, 그리고 차별경험의 종류에 대한 가설들(가설2-가설7)은 조사 1의 경우와 동일하다.

방 법

조사대상자

본 조사의 분석에 사용된 총 조사대상자는 789명으로서 서울/경기,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대학생

520명(남 214명, 여 306명)과 일반인 269명(남 138명, 여 131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분포는 표 7과 같으며 출신지역과 성별로 본 분포는 표 8과 같다. 대학생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1.2세이며 범위는 19세~31세이었으며 일반인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8.1세이며 범위는 23세~65세이었다.

표 7. 조사지역, 응답자유형 및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빈도분포

응답자유형		조사지역				전체
		서울/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학생	남성	52	51	60	51	214
	여성	87	85	60	74	306
	전체	139	136	120	125	520
일반인	남성	46	29	30	33	138
	여성	43	28	30	30	131
	전체	89	57	60	63	269

표 8. 출신지역과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빈도분포

성별	출신지역	서울/경기	부산/경상	광주/전라	대전/충청	기타*	전체
		남성	77	104	103	58	
여성	92	138	104	89	8	431	
전체	169	242	207	147	18	783	

*: 기타지역은 강원도(11), 제주도(6), 기타(1)로 분류된다

설문지

본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성별’을 ‘출신지역’으로, ‘성별 집단’을 ‘출신지역 집단’으로 대체시킨 것으로서 성별집단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며 약간 다른 몇 가지 문항들만 소개한다.

출신지역 집단의 지위를 평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문항들은 “나의 출신지역 집단은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 집단들보다 우월하다”, “우리 사회에서 나의 출신지역 집단은 다른 지역 집단들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 “우리 사회에서 나의 출신지역 집단은 다른 지역 집단들보다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진다”의 3문항이었다. 집단자아존중척도에서도 ‘내가 속한 성별집단(남성/여성)’을 ‘나의 출신지역 집단’으로 대체하였다.

조사 방법

성별집단의 조사 연구와 동일하다.

결과 및 논의

출신지역집단의 지위의 고저, 정당성 및 안정성의 효과

출신지역 집단의 지위 고저, 정당성, 나-차별경험과 내집단-차별경험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신뢰도는

.67~.80에 걸쳐서 나타났다. 안정성을 측정하는 두 문항의 신뢰도는 .46으로 낮은 편이었다. 출신지역에 따라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인 지위의 고저, 정당성 및 안정성의 평정을 비교해 보면 지위 고저($F(4,774) = 88.25, p < .001$)와 정당성($F(4,775) = 25.04, p < .001$)의 평정이 출신지역에 따라 유의하게 다르며 안정성($F(4,775) = 2.08, p = .08$)의 평정은 유의한계에 있었다(표 9). 지위는 서울/경기($M = 3.45, sd = .87$)지역 집단의 지위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부산/경상($M = 3.05, sd = .67$)지역, 대전/충청($M = 2.53, sd = .72$)지역의 순이며 광주/전라($M = 2.22, sd = .54$)와 기타지역($M = 2.22, sd = .57$)이 가장 지위가 낮았다. 지위 정당성도 지위고저의 평정과 같은 순으로 나타났는데, 서울/경기($M = 2.76, sd = .69$), 부산/경상($M = 2.70, sd = .62$), 대전/충청($M = 2.57, sd = .61$)이 동일한 평균대에 있으며 기타지역($M = 2.28, sd = .66$)과 광주/전라($M = 2.20, sd = .57$)지역의 정당성 평정이 더 떨어졌다. 안정성의 평정은 주요 출신지역들인 서울/경기($M = 3.37, sd = .70$), 부산/경상($M = 3.24, sd = .65$), 대전/충청($M = 3.29, sd = .65$), 광주/전라($M = 3.23, sd = .72$)지역 별로 볼 때 대동소이하였다.

표 9. 출신지역 집단에 따른 지위 고저, 정당성, 및 안정성 평정의 평균(표준편차)

	지위고저	정당성	안정성
서울/경기 (n=167)	3.45(.87)a	2.76(.69)a	3.37(.70)ab
부산/경상 (n=241)	3.05(.67)b	2.70(.62)a	3.24(.65)b
대전/충청 (n=147)	2.53(.72)c	2.57(.61)a	3.29(.65)ab
광주/전라 (n=206)	2.22(.54)d	2.20(.57)b	3.23(.72)b
기타 (n=18)	2.22(.57)d	2.28(.66)b	3.56(.59)a

다른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ps < .05$, Student-Newman-Keuls test).

차별경험에 대한 지위 고저와 정당성 및 안정성 변인들의 주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지위 고저와 정당성과 안정성의 변인은 나-차별경험에서나 내집단-차별경험에서나 동일하게 유의있는 예측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경험을 평균하여 전체적인 차별경험의 정도를 산정하였고 그에 대한 회귀분석을 제시하였다(표 10).

표 10. 출신지역집단 지위의 고저, 정당성 및 안정성변인의 차별경험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B	표준오차	β	t	p	ΔR^2	ΔF	p
지위 고저	-.388	.026	-.447	-14.98	< .01	.300	336.51(1,785)	< .01
지위정당성	-.315	.033	-.287	-9.62	< .01	.075	94.34(1,784)	< .01
지위안정성	.180	.030	.169	6.10	< .01	.028	37.15(1,783)	< .01

$R^2 = .404$ adj $R^2 = .401$ $R = .635$

지위 고저, 정당성, 안정성은 1-5점의 5점 척도상의 점수이며 점수가 클수록 그 정도가 큰 것임.

성별집단의 결과와 동일하게 자신이 속한 출신지역 집단의 지위를 높게 평가할수록, 그 지위가 정당하다고 볼수록, 자신과 내집단이 차별을 덜 경험한다고 지각한다($\beta = -.447, -.287, p_s < .01$). 그러나 자신이 속한 출신지역집단의 지위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할수록 자신과 내집단이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beta = .169, p < .01$; 가설 2). 지위의 고저, 정당성 및 안정성의 구조적 변인들 중에서 차별경험을 예측하는 예측력이 가장 큰 것은 지위고저 변인이었으며($\Delta R^2 = .300, p < .01$) 지위 정당성($\Delta R^2 = .075, p < .01$), 지위 안정성($\Delta R^2 = .028, p < .01$)의 순으로 예측력이 있었다. 이 세 변인은 차별경험의 변량을 40.4%정도 설명하였다(회귀식에 대한 $F(3,783) = 176.57, p < .01$).

지위 고저와 정당성 및 안정성 간의 이원 상호작용과 삼원 상호작용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 변인들만 설정한 회귀모형에 부가하여 차별경험에 대해 2원 상호작용의 변인들과 3차 상호작용의 변인들을 위계적으로 회귀 분석하였다(표 11). 집단 지위의 정당성 및 안정성의 주효과에 부가하여 상호작용 중에서 지위x안정($\Delta R^2 = .011, F_{\text{변화량}} = 15.28, df = 1, 782, p < .01$)과 지위x정당($\Delta R^2 = .009, F_{\text{변화량}} = 12.52, df = 1, 781, p < .01$)의 상호작용이 효과가 있었다. 삼원 상호작용의 효과는 없었다. 집단 지위 고저의 회귀계수는 주효과만을 설정한 경우와 달라서 유의하지 않았다($\beta = -.276, t = -1.66, p = .097$).

표 11. 출신지역집단의 지위고저x안정성, 지위고저x정당성의 차별경험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B	표준오차	β	t	p	ΔR^2	ΔF	p
지위고저x안정성	-.126	.033	-.616	-3.82	< .01	.011	15.28(1,782)	< .01
지위고저x정당성	.116	.033	-.535	3.54	< .01	.009	12.52(1,781)	< .01

주효과와 두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한 선형회귀모형의 $R^2 = .424$, 수정된 $R^2 = .421$, $R = .651$, $F(5,781) = 115.07, p < .01$

지위고저와 안정성의 상호작용과 지위고저와 정당성의 상호작용은 지위 고저에 따라 안정성이나 정당성이 차별경험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짐을 시사해 준다. 지위 고저와 안정성, 또는 정당성의 최소값과 최대값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그림 6과 그림 7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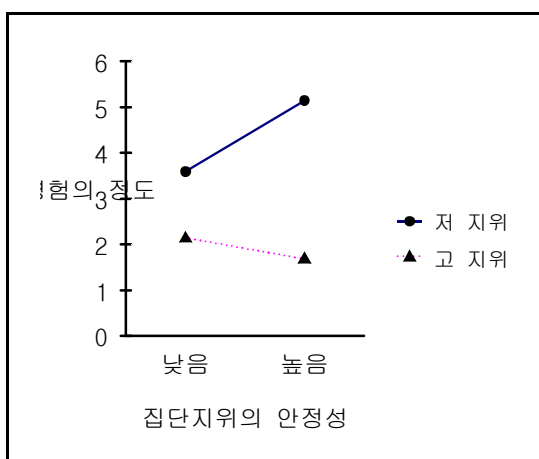


그림 6. 차별경험에 미치는 지역집단의 지위 고저와 안정성의 예상되는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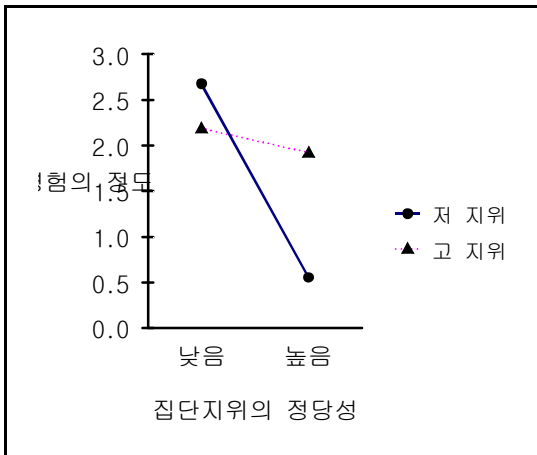


그림 7. 차별경험에 미치는 지역집단의 지위 고저와 정당성의 예상되는 상호작용 효과

그림 6을 보면, 전반적으로 자신의 출신지역 집단의 지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볼수록 자신이나 내집단이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지각하는데 이런 안정성의 정적인 효과가 출신지역 집단의 지위가 낮을 때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내집단의 지위가 낮다고 지각되면 그 집단의 지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질수록 자신이나 내집단이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지각한다. 집단의 지위가 높을 때는 그 지위가 안정될수록 오히려 차별을 덜 받는 것으로 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 지위 집단원에게는 안정성의 변인이 차별경험의 지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고 지위 집단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안정성 변인이 차별경험의 지각과 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며 특히 저 지위 집단의 경우에서 이런 정적 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란 예언(가설 4)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출신지역 집단의 정당성도 전반적으로는 집단지위의 정당성이 높을수록 차별을 덜 받는 것으로 지각하는 관계를 보이나 예상한 대로 이런 관계성은 특별히 집단 지위가 낮을 때 두드러짐을 보여준다(그림 7; 가설 3). 출신지역 집단의 지위가 낮다고 지각되며 낮은 그 집단의 지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수록 자신이나 내집단이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며 그런 낮은 지위가 정당하다고 볼수록 차별을 적게 받는다고 지각한다. 반면에 출신지역 집단의 지위가 높을 때는 차별경험의 지각을 부적으로 예견해 주는 정당성 변인의 예측력이 크게 떨어짐을 볼 수 있다.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경험 종류의 비교

집단의 구조적 변인인 지위 고저와 그 지위의 정당성 및 안정성의 변인도 차별경험에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출신지역 변인 역시 차별경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출신지역에 따라 차별을 달리 경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차별경험의 종류(나-차별/내집단-차별)를 집단 내 변인으로, 출신지역은 집단 간 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하였다(표 12). 분석 결과, 예상한대로 차별경험 종류의 주효과($F(1,775) = 143.44, p < .001$)가 나타났다(가설 7).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이 차별받는 것($M = 2.30, sd = .76$)보다는 자신이 속한 내집단이 더 많이 차별받는 것($M = 2.70, sd = .82$)으로 보았다. 출신지역의 주효과($F(4,775) = 69.92, p < .001$)도 나타나 광주/전라 지역출신($M = 3.01, sd = .58$)과 기타 지역출신($M = 3.12, sd = .73$)이 가장 차별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지각하며 다음으로 대전/충청지역 출신($M = 2.48, sd = .75$)과 부산/경상지역출신($M = 2.41, sd = .62$)이 차별경험을 많이 지각하며 서울/경

기지역 출신($M = 1.97, sd = .56$)이 가장 차별을 적게 받은 것으로 지각하였다(Student-Newman-Keuls test, $ps < .05$). 경험종류와 출신지역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있어서($F(4,775) = 17.81, p < .001$), 출신지역 별로 내집단-차별경험과 나-차별경험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70)이 다른 지역(기타 .39, 서울/경기 .31, 대전/충청 .31, 부산/경상 .26)보다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즉, 광주/전라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자신이 차별받은 경험보다 내집단이 차별받는 것이 보다 더 크다고 지각하고 있다.

표 12. 출신지역과 차별경험의 종류에 따른 차별경험정도의 평균(표준편차)

	서울/경기 (n=168)	부산/경상 (n=241)	광주/전라 (n=206)	대전/충청 (n=147)	기타 (n=18)	F(df)	p
나-차별경험	1.82(.60)	2.28(.67)	2.66(.71)	2.32(.81)	2.93(.83)	37.55(4,775)	$p < .01$
내집단-차별경험	2.13(.60)	2.55(.70)	3.36(.64)	2.63(.78)	3.31(.76)	84.31(4,775)	$p < .01$
전체-차별경험	1.97(.56) ^a	2.41(.62) ^b	3.01(.58) ^c	2.48(.74) ^b	3.12(.73) ^c	69.92(4,775)	$p < .01$

a: 다른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ps < .05$, Student-Newman-Keuls).

출신지역과 지위고저, 정당성, 안정성과의 상호작용이 차별경험에 미치는 효과

출신지역에 따라 출신지역 집단 지위의 고저($F(4,774)=88.25, p < .01$)와 정당성($F(4,775)=25.04, p < .01$)의 평정이 출신지역에 따라 유의하게 달랐다(표 9). 이런 결과는 출신지역에 따라 이 구조변인들이 차별경험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출신지역과 구조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선형모형의 변량 분석을 따라 차별경험의 지각에 대하여 출신지역변인은 고정변인(fixed factor)으로, 지위 고저, 정당성 및 안정성의 변인은 연속변인(covariate)으로 하여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출신지역x지위고저, 출신지역x정당성, 출신지역x안정성)를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출신지역($F(4,759) = 2.30, p = .058$), 지위 고저($F(1,759) = 31.19, p < .01$), 정당성($F(1,759) = 44.34, p < .01$), 안정성($F(1,759) = 16.25, p < .01$)의 주효과가 모두 나타났으며, 출신지역과 정당성 간의 상호작용이 효과가 있었다($F(4,759) = 2.98, p < .05$). 다른 상호작용들은 효과가 없었다.

출신지역과 정당성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은 출신지역에 따라 정당성 변인이 전체 차별경험을 예측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상이한 예측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차별경험에 유의한 예측효과를 지닌 변인들인 출신지역, 지위고저, 정당성, 안정성, 출신지역x정당성 변인만을 반영한 일반선형모형을 가정하였고 출신지역에 따른 회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모형에 따른 모수추정치는 표 13과 같으며 출신지역에 따른 정당성과 차별경험의 예상되는 관계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 그림 8이다.

표 13. 출신지역, 지위고저, 정당성, 안정성 및 출신지역x정당성의
일반선형모형에 따른 차별경험에 대한 모수추정치

모수	B	표준오차	t	p
[출신지역=1]	2.646	.207	12.76	.000
[출신지역=2]	3.329	.193	17.26	.000
[출신지역=3]	3.736	.178	20.96	.000
[출신지역=4]	3.706	.217	17.05	.000
[출신지역=5]	4.490	.477	9.41	.000
지위	-.275	.029	-9.59	.000
정당성	-.624	.195	-3.21	.001
안정성	.186	.028	6.63	.000
[출신지역=1] * 정당성	.491	.203	2.41	.016
[출신지역=2] * 정당성	.372	.202	1.84	.066
[출신지역=3] * 정당성	.299	.205	1.46	.144
[출신지역=4] * 정당성	.179	.207	.87	.387
[출신지역=5] * 정당성	0	.	.	.

출신지역 1: 서울/경기 2:부산/경상 3:광주/전라 4:대전/충청 5:기타
지위, 정당성, 안정성은 1-5의 5점 척도상의 점수이며 점수가 클수록 그 정도가 큰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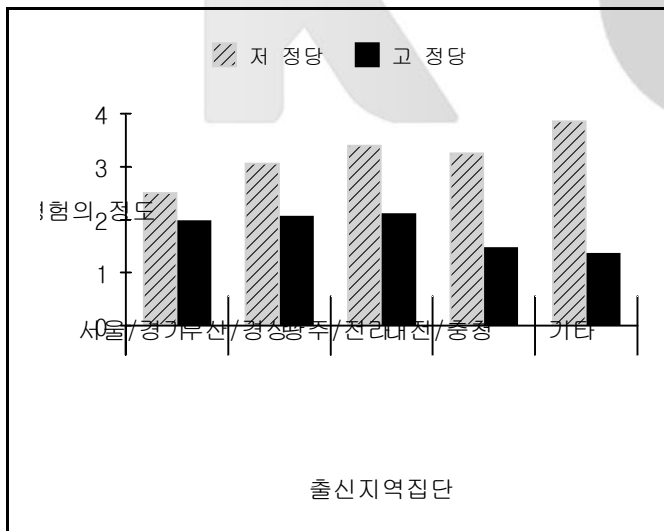


그림 8. 출신지역집단에 따른 정당성과 차별경험의
예상되는 관계

그림 8을 보면 전반적으로 출신지역집단의 지위가 정당하다고 볼수록 차별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지각하는데, 정당성에 따른 차이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가장 적으며 광주/전라, 대전/충청, 기타 지역에서는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신지역 사람들이 내집단의 지위를 평정한 것(표 9)을 보면 내집단의 지위가 낮아질수록 정당성 변인의 부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정당성이 낮을 때와 정당성이 높을 때의 차

이가 벌어지는 것임을 시사받는다. 이 결과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지위x정당성의 상호작용으로 차별경험의 지각이 일어나며 정당성의 부적 효과가 저 지위 집단에서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란 예언을 지지한다(가설 3).

차별경험에 대한 개인차변인들의 효과

본 조사에서는 차별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차 변인들로서 개인자존감, 집단자아존중, 평등규범의 찬성정도, 형평규범의 찬성정도 등을 설정하였다. 각각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신뢰도는 각각 .80(10문항), .49(6문항), .42(2문항), .28(2문항)이었다.

개인차변인들이 차별경험을 얼마나 예측하게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자아존중($\beta = -.365, t = -6.72, p < .01$)과 평등규범($\beta = .153, t = 4.23, p < .01$)이 차별경험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들로 나타났다(표 14). 자신의 출신지역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이 높을수록 그 집단에 속한 자신이나 내집단이 차별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지각하며(가설 5) 평등규범을 옹호할수록 자신이나 내집단이 차별을 더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다(가설 6).

표 14. 지역집단의 경우, 개인차 변인들의 차별경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B	표준오차	β	t	p	ΔR^2	ΔF	p
집단자아존중	-.365	.054	-.232	-6.72	< .01	.062	52.25(1,784)	< .01
평등규범	.153	.036	.146	4.23	< .01	.021	17.86(1,783)	< .01

$R^2=.083$ $adj R^2=.081$ $R=.289$

출신지역 집단에 따른 이 개인차변인들의 평균을 비교하면, 집단자아존중($F(4,775) = 4.84, p < .01$)과 평등규범($F(4,774) = 4.82, p < .01$)에서 출신지역 집단의 주효과를 보여 준다. 서울/경기 지역($M = 3.29, sd = .46$) 출신의 사람들이 기타 지역($M = 3.19, sd = .47$) 출신보다 유의하게 집단자아존중이 높았다. 평등규범의 경우 출신지역집단 간의 단순효과는 없었다. 출신지역에 따라 각 개인차변인이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출신지역 변인을 고정변인으로 하고 이 두 개인차 변인들을 연속변인으로 하여 주효과들과 출신지역 변인과 집단자아존중 및 평등규범과의 상호작용을 설정한 일반선형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상호작용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_s < 2.0, p_s > .10$). 따라서, 집단자아존중이나 평등규범이 차별경험을 예측하는 정도가 출신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집단자아존중에 대한 구조적 변인들과 출신지역 변인의 효과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인 집단 지위의 고저, 정당성 및 안정성의 변인들이 집단자아존중을 예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의 주효과에 대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고 부가하여 상호작용 효과들을 위계적으로 회귀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효과들 중에서는 지위의 고저($\beta = .283, \Delta R^2 = .109, p < .001$)와 지위의 정당성($\beta = .122, \Delta R^2 = .013, p = .001$)이 유의하였고 상호작용 효과들 중에서는 지위x정당성의 상호작용($\beta = .673, \Delta R^2 = .015, p < .001$)이 유의하였다. 전반적으로 지역집단의 지위가 높을수록 그 집단에 대한 존중감이 높아지며 지역집단의 지위가 정당하다고 볼수록 집단자아존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지위x정당성의 상호작용은 각 변인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회귀식에 적용하여 예측되는 차별경험의 지각 정도로 나타내었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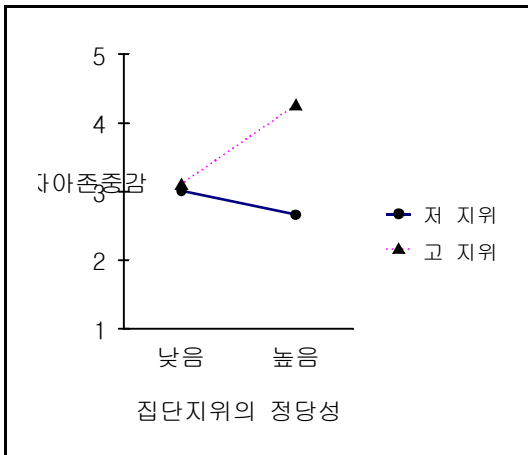


그림 9. 지위고저에 따른 정당성과 집단 자아존중의 예상되는 관계

자신이 속한 지역집단의 지위가 높다고 볼수록 그리고 그 지위의 정당성이 높다고 볼수록 집단자아존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집단지위가 낮다고 볼 때는 이런 정당성의 예견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조사 1과 동일하다(그림 4).

출신지역 변인에 의해 구조적 변인들이 집단자아존중을 예견하는 회귀계수가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출신지역과 구조적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설정한 일반선형모형을 분석했을 때, 출신지역과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구조적 변인들은 없었다($F_s < 1.6$).

요약하면, 차별경험에 대한 개인차변인들의 효과는 예언한 방향대로 결과가 얻어졌다. 개인 자존감은 차별경험의 지각을 예측해 주지 못하며 집단자아존중은 예언대로 차별경험 지각에 부적인 예측 효과를 나타내었다. 규범들 중에는 평등규범만이 차별경험 지각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방향은 예상한대로 평등규범을 찬성할수록 차별경험의 지각이 커지는 정적인 것이었다.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 중에서 지위와 정당성의 변인이 집단자아존중에 대해 정적 회귀를 보였으며 지위와 정당성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 집단자아존중에 대한 정당성 변인의 정적 효과는 집단의 지위가 높을 때에 적용되는 것임을 시사해 주었다.

차별경험에 대한 사회인구적 변인들의 영향

성별집단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조사에서 조사된 사회인구적 변인들 중에서 출신지역 집단으로 인한 차별경험에 관련될 것으로 짐작되는 성별, 연령, 학력, 경제수준 및 출신지역 등이 차별경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을 고정변인으로 하여 주효과만을 설정한 변량분석을 하였다. 연령은 20대부터 60대로 재분류하였고 학력은 고졸이하, 일반대 재학, 전문대졸/대졸/대학원으로 재분류하였다. 경제수준은 상, 중상, 중하, 하의 범주였다. 성별 변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회인구적 변인들이 모두 차별경험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의 효과($F(4,748) = 62.27, p < .01$)는 앞에서 이미 기술된 바 있으며 예상되는 관계는 그림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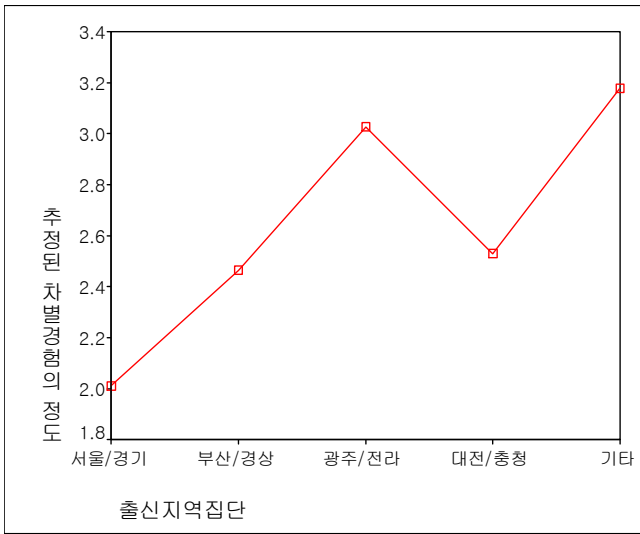


그림 10. 예상된 출신지역 집단과 차별경험 정도와의 관계

연령대는 차별경험을 효과적으로 예언하는 변인으로서($F(4,748) = 2.44, p < .05$), 각 연령대의 평균치(표준편차)는 20대($n = 536$) $M = 2.49(.72)$, 30대($n = 133$) $M = 2.48(.72)$, 40대($n = 64$) $M = 2.52(.84)$, 50대($n = 20$) $M = 2.68(.72)$, 60대($n = 10$) $M = 2.87(.70)$ 으로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별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에 따라 예상되는 차별경험의 추정평균치는 그림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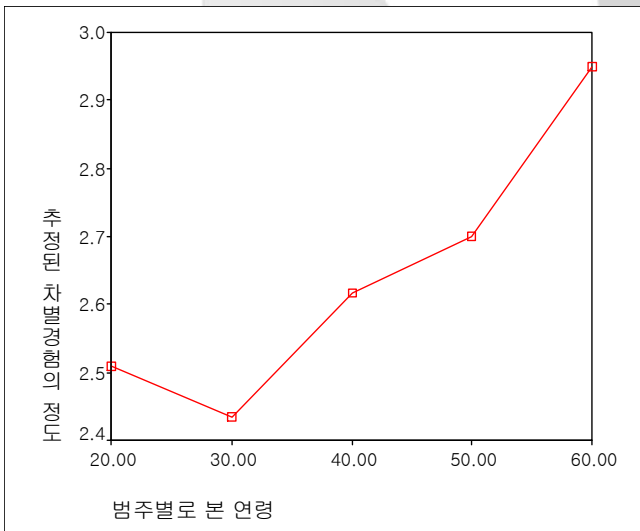


그림 11. 예상된 연령대와 차별경험과의 관계

학력의 사회인구변인은 학력이 높을수록 차별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748) = 5.16, p < .01$). 고졸이하($n = 68$)의 차별경험의 평균치(표준편차)는 $M = 2.41(.71)$ 이며 일반대 재학생($n = 515$)은 $M = 2.49(.71)$, 전문대졸/대졸/대학원($n = 196$)은 $M = 2.59(.77)$ 로서 하위학력과 상위학력의 차이는 유의하였다(Duncan test, $p < .05$).

경제수준도 차별경험에 효과적인 예언변인으로서($F(3,748) = 2.95, p < .05$),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차

별경험의 정도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 '상'인 경우($n = 17$) 차별경험의 평균치(표준편차)는 $M = 2.0(.47)$, '중상'인 경우($n = 350$) $M = 2.39(.74)$, '중하'인 경우($n = 371$) $M = 2.62(.69)$, '하'인 경우($n = 45$) $M = 2.62(.83)$ 으로서 경제수준이 '상'인 사람들이 그 이하의 경제수준인 사람들보다 유의하게 차별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Student Newman Keuls test, $p < .05$).

전체 논의

본 연구는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인 집단 지위의 고저, 지위의 정당성, 지위의 안정성에 대한 평정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내집단원이 지각하는 차별경험의 정도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두 개의 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집단 간 갈등의 주된 주제인 성별과 지역의 두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상이한 집단간 갈등이지만 그 두 조사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모든 집단간 갈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두 갈등 모두 강자와 약자 집단을 포함하고 있고, 약자가 지각하는 차별의 정도는 집단의 지위, 지위정당성 및 지위안정성에 따라 비슷한 방식으로 영향 받을 수 있다.

지각된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에 대해서는 지위 고저, 정당성, 안정성의 변인들이 모두 차별경험의 지각에 관련될 것으로 예언되었는데(가설 2) 성별집단에서건, 지역집단에서건 세 변인들이 공통적으로 차별경험의 지각과 관련되며 그 방향도 일치하였다(표 2와 표 10). 지각된 집단 지위가 높을수록 또 그 지위의 정당성이 높을수록 차별경험의 지각을 덜 하게 되며 지위가 안정될수록 차별경험의 지각은 더하게 되었다. 세 변인들이 차별 경험의 지각을 예측하는 설명력도 지위 고저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지위 정당성, 지위 안정성의 순이었다.

지각된 구조적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차별경험의 지각에 관련될 것으로 예언했는데(가설 3과 가설 4) 예언대로 지위 \times 정당성, 지위 \times 안정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지위 \times 정당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지역집단(그림 7)에서만 나타났으나 성별집단의 경우에서도 추가적인 분석에서 성별과 정당성 간의 상호작용(그림 1)이 나타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위 \times 정당성의 상호작용이 지지되었다. 성별과 정당성 간의 상호작용을 남성을 고 지위로 여성을 저 지위로 대체할 때, 성별과 정당성 간의 상호작용은 지위 \times 정당성의 상호작용 효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성별이란 범주변인과 지위고저 변인이 개념적으로는 독립적인 것이지만 실제로는 두 변인 간의 상관이 높았으며($r=.87$), Major 등(2002)의 연구에서도 남성을 고 지위 집단으로 여성을 저 지위 집단으로 설정하여 실험하였고, 많은 연구들(김금미, 한영석, 2002; 김혜숙, 1994; Crosby, 1982; Major, 1994; Ruggiero & Taylor, 1995, 1997)에서 남녀 집단 간의 지위 차이를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남성을 고 지위 집단으로, 여성을 저 지위 집단으로 대체해 보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예언된 방향대로 정당성 변인이 차별경험의 지각에 보이는 부적인 효과가 집단의 지위가 낮을 때(또는 여성) 지위가 높을 때(또는 남성) 보다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났다. 즉, 집단의 지위가 높을 때도 그 지위의 정당성이 높아질수록 차별경험의 지각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부적 효과는 집단의 지위가 낮을 때 매우 두드러져서 정당성의 고저에 따라 차별경험 지각에서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들이 보여 주었던 소수 또는 저 지위 집단에 나타나는 정당성 변인의 효과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것이며 정당성이론의 통합된 설명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하자면 지위와 정당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세부적인 결과 패턴은 연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 시사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지위와 정당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의 결과 패턴은 Major 등(2002)이나 안미영, 김혜숙(2003)의 연구 결과 패턴과 다르다. 즉, 이 두

연구들에서도 집단 지위와 정당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저 지위 집단의 경우는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당성이 낮을수록 차별 지각이 높아졌으나 고 지위 집단의 경우에는 반대로 정당성이 낮을수록 차별 지각이 덜 일어났다. 이와 같이 Major 등(2002)과 안미영, 김혜숙(2003)의 실험에서 고 지위 집단의 경우 정당성이 높을 때 오히려 차별지각을 더 많이 한 것은 그들의 실험 연구 상황에서는 피험자가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상황에서의 차별 지각을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고 지위 집단의 지위가 정당할수록 차별경험 지각이 낮은 것은, 실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고 지위 집단이건 저 지위 집단이건 그 집단 지위가 정당하지 않을수록 그 부당성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의 차별을 더욱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즉, 그 사회에서 낮은 지위를 가지는 집단은 자신의 집단에 부여된 낮은 지위가 정당하지 않을수록 그러한 낮은 지위가 차별에 의한 것이라고 지각할 것이며, 반면 높은 지위의 사람들은 그 지위가 정당하지 않을수록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 의한 적대감과 반발에 직면할 것이고, 따라서 ‘차별’을 더 많이 지각할 수 있다.

예언된 지위x안정성의 상호작용(가설 4)은 지역집단의 조사(그림 6)에서만 나타났다. 이 상호작용 효과는 안정성 변인이 가진 차별경험의 지각에 대한 정적인 예측효과가 집단의 지위가 낮을 때에 적용되는 것임을 보여 준다. 응답자들은 내집단의 지위가 낮을 때는 그 지위가 안정되어 있다고 볼수록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지각하지만 내집단의 지위가 높을 때는 지위가 안정되어 있다고 볼수록 차별경험을 오히려 덜 보고하는 경향이였다.

개인차 변인들이 차별경험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두 조사에서 모두 집단자아존중이 가장 큰 예측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언한 대로 그 방향은 부정적이었다(가설 5). 즉, 집단자아존중이 높을수록 차별경험의 지각이 낮았다. 사회분배 정의에 관한 규범이 차별경험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집단의 조사에서는 형평규범과 성별x형평규범의 상호작용(그림 3)과 성별x평등규범의 상호작용(그림 2)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차별경험의 지각에는 형평규범이, 여성의 차별경험의 지각에는 평등규범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남성들은 투자한대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형평의 분배규범 신념이 강할수록 자신에 대한 차별을 더 많이 지각하는 데 반해 여성들은 약자 집단도 강자 집단만큼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규범에 대한 신념이 강할수록 자신에 대한 차별 경험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 집단이 (역)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형평분배 신념이 강할수록 그러하고 소수 집단이 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평등분배신념이 강할수록 그러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지역집단의 조사에서는 평등규범만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들은 지역간 갈등문제에 있어서는 형평보다는 평등을 더 중시하며 사회의 제반 이익이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질수록 지역에 따른 차별을 더 경험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두 조사에서 모두 분배규범의 찬성정도는 예상한 대로(가설 6) 차별경험의 지각을 정적으로 예측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로 인하여 형평규범이나 평등규범이 남성 또는 여성의 어느 한쪽에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형평이건 평등이건 사회분배 정의에 대한 규범을 찬성할수록 차별경험을 더 많이 지각하였다.

이미 기존의 연구들(Taylor, Wright, Moghaddam, & Lalonde, 1990; Taylor, Wright, & porter, 1993; Olson & Hafer, 2001)에서 밝혀진 것처럼 차별경험의 지각에서 두 조사에서 모두 자신이 차별받았다는 지각은 내집단이 차별받았다는 지각보다 더 낮았다(가설 7: 표 3과 표 12). 이는 다른 선행연구 결과를 반복하는 것으로, 소수 집단의 사람들은 자신이 차별당하는 것은 덜 지각하면서 자신의 집단이 차별받는 것은 더 크게 지각하는, 우애적 차별 지각 현상이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들-성별 및 지역별-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자신과 집단의 차원에서의 구분적 차별 지각은 소수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개인적 심리 안정과 자존감 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편 소수 집단의 사람들이 집단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유된 체험을 바탕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의 주 관심은 아니었지만 두 조사에서 공통되게 나타난 또 다른 결과는 지각된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과 집단자아존중과의 관계였다. 지각된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 중에서 성별집단의 조사에서는 정당성과 지위 \times 정당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집단자아존중을 예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집단의 조사에서는 지위와 지위 \times 정당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집단자아존중을 예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두 조사에서 지위와 정당성 간의 상호작용이 집단자아존중을 예측하는 공통된 결과가 나왔다(그림 4와 그림 9). 집단의 지위가 정당할수록 집단자아존중은 커지는데, 이런 정당성의 정적인 효과는 집단의 지위가 높을 때 나타나며 집단의 지위가 낮을 때는 정당성 변인은 집단자아존중에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정당화이론에 따라 지각된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과 개인차 변인들이 차별경험의 지각에 미칠 효과를 예언하였다. 특히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 중, 지위 고저와 정당성 및 안정성, 그리고 지위와 정당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 지위와 안정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 집단자아존중의 효과를 예언하였고 이 예언들은 두 조사를 통해 지지되었다. 앞으로 차별경험의 지각이 아닌 다른 행동반응을 측정한다 하여도 동일한 논리로서 예언이 가능할 것이다. 정당화이론이 집단간 관계에 관한 연구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을 제시한 것이 학문적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실험연구가 아닌 조사연구를 통해 지각된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한 데 의미가 있다. 구조적 변인들을 객관적으로 조변하지 않고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평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위 고저와 지위의 정당성, 지위의 안정성, 그리고 지위와 정당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와 집단자아존중의 효과가 두 조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가설 1)은 그만큼 변인들의 효과가 일관되며 실제적임을 시사해 준다. 더군다나 성별과 지역이란 상이한 내용의 집단간 갈등에 대해 동일한 결과가 나온 점은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높여 준다. 적어도 차별경험의 지각이란 반응에서는 집단 간 관계가 어떤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집단의 지위가 낮을수록, 그 지위의 정당성이 낮을수록, 그 지위가 안정되어 있을수록, 또한 내집단의 가치를 낮게 볼수록 차별을 더 많이 받았다고 지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각된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이 집단자아존중이란 사회정체감에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두 조사를 통해 공통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두 조사에서 공통되게 지위와 정당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집단자아존중을 예측하게 하였는데, 지위의 정당성이 높아짐에 따라 집단자아존중이 높아지는 것은 집단의 지위가 높을 때만 적용되는 것임을 보여 주었다. 평균적으로, 남성을 고 지위로 여성을 저 지위로 생각하면, 남성에서만 정당성의 변인이 집단자아존중과 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을 시사해 준다. 성별집단을 조사한 조사 1에서는 집단자아존중에 성별과 안정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살펴보면 여성에서만 지위 안정성의 변인이 집단자아존중과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 즉, 여성의 경우, 내집단의 지위가 안정되어 있다고 볼수록 그 집단에 대한 집단자아존중은 낮아진다.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해보면, 여성의 집단자아존중은 안정성의 변인에 의해 부적으로 예견되며 남성의 집단자아존중은 정당성의 변인에 의해 정적으로 예견될 것이 시사된다.

안정성 변인에 대한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안정성 변인이 차별경험의 지각에 어떻게 관련될 지를 가설을 세워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안미영, 김혜숙(2003)의 연구에서 차별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세 집단 구조 변인들의 효과를 알아보았으나 정당성과 안정성 변인을 결합하여 결과를 예상하였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당화이론에 따라 지위 안정성변인이 차별경험의 지각에 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며 그 관계성은 저 지위 집단에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언하였었다. 예상대로 집단의 지위가 안정되어 있다고 볼수록 차별경험을 더 많이 지각하였고 이런 안정성의 정적인 예측 효과는 집단의 지위가 높게 지각될 때보다 집단의 지위가 낮게 지각될 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 되는 성 갈등과 지역 갈등문제의 해결에 다소의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먼저, 저 지위 집단의 차별경험의 지각이 고 지위 집단과는 달리 정당성 변인에 의해 크게 달

라진다는 결과(지위와 정당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시사하는 바를 생각할 수 있다. 저 지위 집단의 지위 정당성은 고 지위(다수) 집단이 조작할 수 있는 변인이다. 다수 집단의 지배력은 저 지위 집단의 능력에 대한 부적(감정적으로는 정적일 수도 있다; Glick & Fiske(1996)가 제기한 양가적 성차별처럼) 고정관념이 사회적 통념이 되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인식된 저 지위 집단의 낮은 지위 정당성은 그들로 하여금 그다지 차별 당했다고 보지 않게 하며 따라서 그들이 보이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시도도 별로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저 지위(소수) 집단의 입장에서는 이런 점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다수 집단에 의해 시도되는 미묘하게 위장된 저 지위 집단을 지배하기 위한 전략--즉 저 지위 집단의 낮은 지위를 그들의 낮은 능력으로 정당화시키는--에 대해 깨어있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결국, 소수 집단에서는 내집단의 저 지위가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려 할 것이고 다수 집단에서는 소수 집단의 지위정당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려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정당성 변인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두 집단 간의 갈등을 오히려 더 부추길 여지가 있다.

한편으로 지위안정성의 변인은 차별경험의 지각을 정적으로 예측하며 이 정적 효과는 저 지위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지위와 안정성의 상호작용 효과). 저 지위 집단의 경우, 그 지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게 될 때 불만스러울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차별지각을 많이 하는 것이다. 그 지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차별 지각이 줄어든다. 집단의 지위 전체를 변동시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므로 자연히 안정성 변인은 미래의 변동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점차적인 개선을 시도하는 것으로 구체화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시도는 두 집단 간에 큰 마찰을 피하면서 갈등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집단 자아존중이 차별경험의 지각을 부적으로 예견하게 하므로, 내집단에 대한 사회정체성을 높이는 것도 차별을 덜 지각하게 만들며 따라서 집단 간 갈등이 줄어들게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집단자아존중을 높이는 전략이 집단의 지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받는다. 즉, 저 지위자(여성)의 경우는 지위안정성 변인이 집단자아존중을 부적으로 예측하며 고 지위자(남성)의 경우는 지위정당성의 변인이 집단자아존중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저 지위의 집단에게는 그 지위가 변동될 가능성을 높게 지각하게 만드는 전략을 통해 집단 자아존중이 높아지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차별지각을 덜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고 지위 집단에게는 그 지위정당성을 높게 지각하게 만드는 전략이 집단자아존중을 높일 것이고 따라서 '차별'지각을 덜 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면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먼저는 사회분배규범인 형평규범과 평등규범에 얼마나 찬성하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을 두 문항씩만을 설정하여 문항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이다. 앞으로 좀 더 신뢰롭게 규범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집단과 지역집단이라는 상이한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측정의 타당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성별집단의 경우 회귀분석에서 지위와 정당성 변인과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보완적인 분석으로 성별과 정당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지각된 집단 지위의 효과라기보다는 성별집단 자체의 효과인 셈이다. 그러나 지역집단의 경우에는 지위와 정당성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났으며 지위와 정당성 간의 상호작용은 기존 연구(안미영, 김혜숙, 2003; Major 등, 2002)에서도 검증된 결과이고, 성별 간에 지위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이미 확인된 결과이며, 게다가 본 조사에서 성별집단 변인과 지위고저 변인이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별과 정당성 간의 상호작용을 지위와 정당성 간의 상호작용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다고 여겨진다. 게다가, 성별집단이란 범주 변인 자체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있는 것이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차별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지위정당성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의미있는 결과이다.

앞으로 안정성의 변인에 대한 재검이 필요하다. 차별경험의 지각 외에 집단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른

반응들에서도 정당화이론에 따른 예언대로 안정성 변인이 기능할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단의 구조적 변인들 외에 개인수준이나 집단수준 또는 사회수준에서 정당성의 평정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인들에 눈을 돌려 연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금미·한영석(2002). 여성의 합법성, 안정성 및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신념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3, 1-20.
- 김금미·한덕웅·한영석(2003). 남성의 성별관계 인식과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31-47.
- 김혜숙(1994). 한국집단자아존중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1), 103-116.
- 안미영·김혜숙(2003). 집단 지위와 정당성 및 안정성이 차별지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59-179.
- Amato, M., Crocker, J., & Major, B. (1995, August). The stigma of overweight and self-esteem: The role of perceived control.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York.
- Crandall, C. S. (1994). Prejudice against fat people: Ideology and self-inter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882-894.
- Crocker, J., Cornwell, B., & Major, B. (1993). The stigma of overweight: Affective consequences of attributional ambigu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0-70.
- Crocker, J., & Major, B. (1989).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96, 608-630.
- Crosby, F. (1982). *Relative deprivation and working wom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osby, J. J., Pufall, A., Snyder, R. D., O'Connell, M., & Whalen, P. (1989). The denial of personal disadvantage among you, me, and all the other ostriches. In M. Crawford & M. Gentry(Eds.), *Gender's thought: Psychological perspectives* (pp. 79-99). New York: Springer-Verlag.
- Ellemers, N. (2001). Individual upward mobility and the perceived legitimacy of intergroup relations. In J. T. Jost & B. Major (Eds.), *The psychology of legitimacy: Emerging perspectives on ideology, justice, and intergroup relations* (pp. 205-22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lemers, N., Doosje, B. J., van Knippenberg, A., Wilke, H. (1992). Status protection in high status minority group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 123-140.
- Ellemers, N., van Knippenberg, A., Wilke, H. (1990). The influence of permeability of group boundaries and stability of group status on strategies of individual mobility and social chang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233-246.
- Ellemers, N., Wilke, H., & van Knippenberg, A. (1993). Effects of the legitimacy of low group

- or individual status on individual and collective status-enhancement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766-778.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91-512.
- Hogg, M. A., & Abrams, D. (1988). *Social identifications*. New York: Routledge, Chapman & Hall.
- Jost, J. T. (1995). Negative illusions: Conceptual clarification and psychological evidence concerning false consciousness. *Political Psychology*, *16*, 397-424.
- Jost, J. T. (1997). An experimental replication of the depressed-entitlement effect among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387-393.
- Jost, J. T., & Banaji, M. R. (1994). The role of stereotyping in system-just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alse conscious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1-27.
- Jost, J. T., & Burgess, D. (2000). Attitudinal ambivalence and the conflict between group and system justification motives in low status grou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293-305.
- Jost, J. T., Burgess, D., & Mosso, C. (2001). Conflicts of legitimation among self, group, and system. In J. T. Jost & B. Major (Eds.), *The psychology of legitimacy: Emerging perspectives on ideology, justice, and intergroup relations* (pp. 363-38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y, A. C., & Jost, J. T. (2003). Complementary justice: Effects of "poor but happy" and "poor but honest" stereotype exemplars on system justification and implicit activation of the justice mo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823-837.
- Levin, S., Sidanius, J., Rabinowitz, J. L., & Federico, C. (1998). Ethnic identity, legitimizing ideologies, and social status: A matter of ideological asymmetry. *Political Psychology*, *19*, 373-404.
- Major, B. (1994). From social inequality to personal entitlement: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s, legitimacy appraisals, and group membership.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6, pp. 293-348).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Major, B., & Crocker, J. (1993). Social stigma: The affective consequences of attributional ambiguity. In D. M. Mackie & D. L. Hamilton (Eds.), *Affect, cognition, and stereotyping: Interactive processes in intergroup perception* (pp. 345-370). New York: Academic Press.
- Major, B., Gramzow, R. H., McCoy, S. K., Levin, S., Schmader, T., & Sidanius, J. (2002). Perceiving personal discrimination: The role of group status and legitimizing ide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269-282.
- Major, B., McFarlin, D. B., & Gagnon, D. (1984). Overworked and underpaid: On the nature of gender differences in personal entitl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399-1412.
- Major, B., & Schmader, T. (2001). Legitimacy and the construal of social disadvantage. In J. T. Jost & B. Major (Eds.), *The psychology of legitimacy: Emerging perspectives on ideology, justice, and intergroup relations* (pp. 176-20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tin, J. (1986). The tolerance of injustice. In M. M. Olson, C. P. Herman, & M. P. Zanna

- (Eds.),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comparison: The Ontario symposium*(Vol. 4, pp. 217-242). Hillsdale, NJ: Erlbaum.
- Olson, J. M., & Hafer, C. L. (2001). Tolerance of personal deprivation. In J. T. Jost & B. Major (Eds.), *The psychology of legitimacy: Emerging perspectives on ideology, justice, and intergroup relations* (pp. 157-17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atto, F., Sidanius, J., Stallworth, L. M., & Malle, B. F. (1994).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741-763.
- Ruggiero, K. M., & Taylor, D. M. (1995). Coping with discrimination: How disadvantaged group members perceive the discrimination that confronts th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826-838.
- Ruggiero, K. M., & Taylor, D. M. (1997). Why minority group members perceive or do not perceive the discrimination that confronts them: The role of self-esteem and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373-389.
- Schmader, T., & Major, B. (1999). The impact of ingroup vs. outgroup performance on personal valu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5*, 47-67.
- Schmader, T., Major, B., Eccleston, C. P., & McCoy, S. K. (2001). Devaluing domain in response to threatening intergroup comparison: Perceived legitimacy and the status value asymmet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782-796.
- Sidanius, J., Levin, S., Federico, C. M., & Pratto, F. (2001). Legitimizing ideologies: The social dominance approach. In J. T. Jost & B. Major (Eds.), *The psychology of legitimacy: Emerging perspectives on ideology, justice, and intergroup relations* (pp. 307-33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ears, R., Jetten, J., & Doosje, B. (2001). The (il)legitimacy of ingroup bias: From social reality to social resistance. In J. T. Jost & B. Major (Eds.), *The psychology of legitimacy: Emerging perspectives on ideology, justice, and intergroup relations* (pp. 332-36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ele, C. M. (1997). A threat in the air: How stereotypes shape intellectual identity and performance. *American Psychologist*, *52*, 613-629.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pp. 33-48). Monterey, CA: Brooks/Cole.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7-24). Chicago: Nelson-Hall.
- Taylor, D. M., Wright, S. C., Moghaddam, F. M., & Lalonde, R. N. (1990). The personal/group discrimination discrepancy: Perceiving my group, but not myself, to be a target for discri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 254-262.
- Taylor, D. M., Wright, S. C., & Porter, L. E. (1993). Dimension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The personal/group discrimination discrepancy. In M. Zanna & J. Olson(Eds.), *The psychology of prejudice: The Ontario Symposium*(Vol. 7, pp. 233-255). Hillsdale, NJ:

Erlbaum.

- Turner, J. C., & Brown, R. (1978). Social status, cognitive alternatives, and intergroup relations. In H. Tajfel (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pp. 201-234). London: Academic Press.
- Tyler, T. R., & McGraw, K. M. (1986). Ideology and the interpretation of personal experience: Procedural justice and political quiescence. *Journal of Social Issues, 42*, 115-128.
- Wright, S. C. (2001). Restricted intergroup boundaries: Tokenism, ambiguity, and the tolerance of injustice. In J. T. Jost & B. Major (Eds.), *The psychology of legitimacy: Emerging perspectives on ideology, justice, and intergroup relations* (pp. 223-25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right, S. C., Taylor, D. M., & Moghaddam, F. M. (1990). Responding to membership in a disadvantaged group: From acceptance to collective pro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994-1003.

K C I

The Perception of Group Status, Legitimacy and Stability and the Perceived Discrimination: In the Case of Gender and Regional Groups

Miyoung Ahn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Ajou Univ.

Hai-Sook Kim

Dept. Psychol., Ajou Univ.

Sangsu Ahn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Ajou Univ.

We investigated people's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owing to the membership of gender and regional groups. The predictability of the perceived structural variables of group such as the group status, legitimacy and stability, the variables of individual differences such as the endorsement of norms of distributive justice, individual and collective self-esteem, and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to the perceived discrimination was examined. The hypothesized effects derived from the theory of legitimacy were confirmed in that the perception of group status and legitimacy predicted the perceived discrimination negatively, whereas the perception of stability positively predicted the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the strength of the predictability was in the order of the group status, legitimacy and stability. The pattern of the negative effect of legitimacy was steeper when the group status was perceived as low(or female) in comparison with the case when it was perceived as high(or male). Collective self-esteem, which was predicted by the interaction effect of group status and the legitimacy,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perceived discrimination. It was revealed that the norm of equality was an effective predictor. In the case of gender group, the norm of equality was influential to the female's perceived discrimination whereas the norm of equity was influential to the male's perceived discrimination. The results and the meaning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perceived discrimination, group status, legitimacy, stability, theory of legitimacy, gender group, regional group, sex difference, norm of distributive justice, collective self-esteem,